

덴마크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코펜하겐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5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6
- 주요 산업 동향 /8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3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4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6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17
 - 대한수입규제동향 /19
 - 관세제도 /19
 - 주요인증제도 /21
 - 지적재산권 /24
 - 통관운송 /25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7
- 외국기업 투자동향 /29
- 우리기업 투자동향 /3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1
- 진출형태별 절차 /33
- 투자입지여건 /44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5
- 조세제도 /50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4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55
- 물가정보 /57
- 바이어발굴 /58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59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62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2
- 이주정착 가이드 /63
- 출장가이드 /66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86
- 유관기관 웹사이트 /88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덴마크(The Kingdom of Denmark)
위치	북위 54°34'부터 57°까지, 동경 8°5'부터 15°12'까지 (북해와 발트해 사이에 위치, 반도 및 406개 섬으로 구성)
면적	43,098km ² (한반도의 1/5)
기후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 변화가 심함. (평균 기온: 0.4℃(2월), 16.5℃(7월)) 연평균 강우량은 664mm이며 강우가 있는 날은 연간 약 160일
수도	코펜하겐(인구 52만 명, 수도권 포함 166만 명)
인구	551만 명 (2009년 1월 현재)
주요 도시	Aarhus(30만 명), Aalborg(20만 명), Odense(19만 명) 등
민족(인종)	전체 인구의 96%가 북게르만계의 데인족
언어	공용어: 덴마크어, 상용어: 덴마크어, 영어, 독일어
종교	덴마크 루터복음교(87%), 기타(가톨릭, 침례교, 유대교)(12%)
헌법 제정일	1849년 6월 5일
정부 형태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실권자)	국가원수: H.M. Queen Margrethe II, 총리: Mr. Lars Løkke Rasmussen
입법부	단원제(총 179석, 자치령 4석 포함)
정당	- 여당: 자유당(Liberal Party), 보수당(Conservative Party) - 최대 야당: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 기타 정당: 덴마크국민당, 사회 국민당, 중도 민주당, 좌파 연합당, 기독교 국민당, 진보당
정부 성향	우파 연합정당

자료: 덴마크 통계청

나. 경제 지표

GDP	3,412 억 달러('08년)
실질 경제성장률	-1.3%('08년)
1인당 GDP	62,127 달러 ('08년)
실업률	1.9%(평균, '08년)
물가 상승률	3.4%(평균, '08년)
화폐 단위	Danish Kroner(DKR)
환율	US\$ 1=DKK5.0986(평균, '08년)
외채	261억 달러('08년)
외환 보유고	340억 달러('08년)
산업 구조	공공 서비스(26.4%), 무역 운송 통신(23.8%), 금융(20.3%), 광공업 에너지(22.1%), 건설업(4.6%), 농수산업(2.8%)
교역 규모	상품 수출: 1,149억 달러, 수입: 1,097억 달러('08년)
교역 품	- 수출: 돈육 및 육가공품, 의약품, 원유, 모피, 가구, 무선통신기기 - 수입: 자동차 및 부품,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 일반 기계, 통신기기

자료: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중앙은행

다. 한-덴마크 관계

체결 협정	상표의 상호 등록에 관한 협정('60), 사증 면제 협정('69), 개발차관 협정('69), 이중과세 방지 협정('77), 해운 협정('80), 재입국 사증 면제 협정('87), 투자보장 협정('88)
교역 규모(2008년)	수출: 4억 833만 달러, 수입: 7억 909만 달러
교역 품	- 수출: 자동차, 선박용엔진 및 부품, 주단강, 발전기, 전동축 등 - 수입: 의약품, 가축육류, 선박용엔진 및 부품, 가열난방기 등
투자 교류	* 덴마크 기업 투자 유치: 45건 2억 6,700만 달러(2008년말 누계 기준) - 주요 대한 투자 기업: 험펠코리아(주), 노보자임 코리아(주), 노보 노르 디스크 제약(주), 롤런즈 코리아(주), 댄포스(주), 구룬포스펄 프코리아(주), 앤비퍼스트(Bioscan A/S), 유니스테프 코리아 등 - 우리나라의 투자 진출: 10 건 184 만 7,000 달러(2008 년말 누계 기준) - 주요 진출 기업: 셀바이오텍, 대한 항공, 엠텍비전
교 인	약 250여 명

자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 형태 및 조직

1) 행정부

덴마크는 1849년 6월 자유민주주의 헌법 채택으로 입헌군주국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1901년부터 의회 민주 제도(내각책임제)가 시작되었으나 법적으로는 현행 헌법이 채택된 1953년 6월 이후부터이다. 헌법상 3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권은 국왕과 의회가 공동으로 보유하며 형식상 행정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

국가 원수는 1972년 1월15일 즉위한 QUEEN MARGRETHE II 이며 현재의 내각은 2007년 11월 13 일의 총선거에 의해 자유당, 보수당 등의 우파 정당 연립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수상은 자유당의 Lars Løkke Larsen 이다.

2) 사법부

덴마크의 사법부는 대법원(SUPREME COURT), 2개 고등법원(HIGH COURT), 104개 하급 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는 3심 제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외 특별 법원인 해양. 상업 법원(MARITIME AND COMMERCIAL COURT)과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법원(LABOR COURT), 행정행위를 심판하는 Ombudsman 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법관은 법무 장관의 추천에 의해 국왕이 임명하나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

3) 의회

덴마크 의회(Folketing)는 총 179석의 단원제로 운영되며 175석은 덴마크 본토에서 나머지 4석은 자치령인 Greenland 및 Faroe 제도에서 각각 2명씩 선출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부는 임기 종료 전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회가 수상의 불신임 가결, 예산안 등 정부 신임을 묻는 법안을 부결시킬 경우 정부는 사퇴하거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의회는 입법권 및 정부 감독권을 가지나, 의회에서 채택된 법안이 국회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국민 투표에 회부되어 투표자의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동 법안은 부결된다. 현 국회 의장은 자유당의 Mr. Thor Pedersen이며 국회에 진출한 정당 의석 수에 따라 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 정당 현황

- 사회민주당(S: The Social Democratic Party) 1871년 창당되었으며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고 과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독점 기업의 국영화 등을 정강으로 하고 있으며, 당수는 Ms. Helle Thorning-Schmidt이다.
- 사회주의국민당(SF: Socialist People's Party) 1959년 전 공산당의 의장인 Aksel Larsen에 의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창당되었으며 급진 좌파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당수는 Mr. Villy Soevndal 이다.
- 급진자유당(R: Social Liberal Party) 1905년 창당되었고, 당원은 주로 소지주, 지식인 계층이며 국제적인 긴장 완화, 국제 협력, 비사회주의적 방법에 의한 사회 개혁,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 산업 분쟁에의 국가 개입, 트러스트 및 독점의 국가 통제, 사기업화 등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당수는 Ms. Margrethe Vestager이다.
- 통일당(좌파 연합당 - United List) 종전의 Communist Party, Left Socialist Party 및 Worker's Party의 연합에 의해 창당 되었으며 당수는 Mr. Soeren Soendergaard이다.
- 자유당(V: Liberal Party) 1880년 창당되었고, 주요 지지 기반은 농민이며 최근 농촌 및 중소 도시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자유무역, 기업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권력 개입, 근대적이고 전반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채택을 내세우고 있다. 당수는 현재 수상인 Mr. Lars Løkke Rasmussen이다.
- 보수당(K: Conservative People's Party) 1916년 창당되었으며 자유로운 국민 발안, 사유재산 유지, 경제, 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한 국가의 통제권의 인정 등을 정강으로 하고 있다. 당수는 Ms. Lene Espersen이다.
- 기독교 민주당(KR.F: Christian Democrats Party) 1970년 창당,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며 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당수가 없다.
- 덴마크 국민당(Danish Peoples Party) 1995년 창당되었으며 정강은 진보당과 유사하며 외국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EU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당수는 Ms. Pia Kjaersgaard이다.

나. 우파 연합의 집권 지속

덴마크는 좌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과 사회자유당(Social Liberal Party) 연합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해 왔으나 2001년 선거에서 우파정당인 자유당(Liberal Party)과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덴마크국민당(Danish People's Party) 연합이 집권하였고, 2005년 2월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다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2007년 11월13일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 보수당, 덴마크국민당, 3당 연합의 우파 정권이 전체 의석 179석 중 90석을 획득하여 다시 승리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세번 연속 집권하였다.

우파 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덴마크 경제가 계속 호황 국면을 유지하면서 실업을 하락, 개인 소득세 동결 및 복지 제도 개혁,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 노동력이 부족할 당시 받아 들였던 무슬림계 이민자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덴마크국민당이 취하고 있는 이민을 어렵게 하는 정책 시행 등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009년 7월말 임기를 마친 야프데 호프 스테페르 나토사무총장에 이어서 8월부터 4년간 일할 차기 사무총장에 전 덴마크 수상인 Mr. Anders Fogh Rasmussen이 지명되면서 부총리이었던 Mr. Lars Løkke Rasmussen이 현재의 덴마크 수상이다.

정당별 의석 현황

구분		2007 총선	2005 총선	증감
우파 연합	자유당	46	52	-6
	덴마크국민당	25	24	+1
	보수당	18	18	0
New Alliance		5	-	+5
좌파 연합	사회민주당	45	47	-2
	사회국민당	23	12	+11
	사회자유당	9	17	-8
	Unity List	4	6	-2

주: 그린란드 및 페로아일랜드 4개 의석 중에서 우파 연합이 1석, 좌파 연합이 3석 확보

다. 법인세법 개정

덴마크 정부는 여타 EU회원국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 법인세율을 28%에서 25%로 낮추었다. 덴마크 정부가 EU평균 이하로 법인세를 낮춘 것은 외국 기업들의 덴마크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인데,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 혜택에 많은 외국 기업들을 유치한 것을 예로 삼고 있다.

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제도 개선

덴마크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OECD국가처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예산 부담 증가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 인구에 비해 사회복지 수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는 노동 인구 대비 사회복지 수혜 인구의 비율이 0.79%였으나 2006년에는 0.85%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0.91%, 2030년에는 1.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보다 사회 복지 혜택을 수혜 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현재까지 확립해 온 사회 복지 시스템의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2006년에 노인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노인 연금 수령액이 조금 적더라도 조기에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노인 연금 수령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노인 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 연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령화 문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부터 이민을 받아 들여 출산율을 높여 노동 인구 대비 사회 복지 수혜 인구의 비율을 낮출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1960년대 경제호황 때에 받아들였던 중동 이민자들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정치권 및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국과의 이슈 및 관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국과 큰 이슈 및 현안 사항은 없으며, 남, 북한과 동시 수교국 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 전쟁 중에는 병원선(유톨란디아 호)과 600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해 한국을 지원해준 바 있으며, 당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 한국으로부터 고아들을 꾸준히 입양하여 2008년 현재 덴마크 내에 한국계 입양아가 8,600여명에 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정부가 조선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EU가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을 때 덴마크도 제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조선 산업으로 인해 덴마크 조선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거의 몰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으나 WTO로부터 한국이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이 문제도 해소되었다.

2006년에는 덴마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에 당선되도록 한국 측을 지지하였으며, 2006년 11월 덴마크의 엔더슨 포 라스무센 총리가 방한하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다.

2007년 10월에는 사상 최초로 덴마크 여왕이 방한하였는데, 여왕과 함께 37개 기업 및 기관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과 11개 기업으로 구성된 식품사절단, 48명으로 구성된 문화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기업과의 협력방안 모색 및 문화교류 확대를 모색하였다. 한-덴마크 수교 50주년이 되는 2009년에는 대통령 특사의 덴마크 방문, 한-덴마크 수교 50주년 기념 에너지 컨퍼런스 개최(2009년 9월 개최) 등 양국 관련간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 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양국 간에 체결된 주요 협정은 아래와 같다.

- 1960.12. 9 상표의 상호 등록에 관한 협정
- 1963.10.11 특허권 상호 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1969. 9. 5 사증 면제 협정
- 1969.12. 4 개발 차관 협정
- 1975. 9.18 국제 운수에 관한 선박 및 항공기 운항 상호 면세 협정
- 1977.10.11 이중 과세 방지 협정
- 1980. 1. 9 해운 협정
- 1987. 4. 2 재입국 사증 면제 협정
- 1988. 6. 2 투자 보장 협정

나.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는 1973년 7월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으며, 1973년 10월 주덴마크 북한대사관이 설치된 바 있다. 1976년 10월에는 마약, 술, 담배 등의 밀수 혐의로 북한 공관원 전원이 추방되었으며 1978년 7월 신임장을 재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98년 5월 경제 사정이 어려워 북한 대사관은 다시 철수했으며 덴마크 지역은 주 스웨덴 북한 대사관에서 관할하고 있다. 현재도 덴마크 및 북한 간에 인적 교류가 있으며,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원조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북한 수출입 실적

(단위: 천 달러)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 출	11,216	11,077	5,254	6,540	4,549
수 입	2,089	1,820	2,796	1,344	344

자료: 덴마크 통계청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최근 경제 동향 및 향후 전망

1) 경제 성장

2006년 덴마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1.6% 성장에 그쳤다. 이는 낮은 실업률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현상이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둔화를 초래하였고, 또한 개인 소비 증가율도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의 경우 임금 상승에 따라 개인 소득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주택 시장의 정체, 이자 비용 증가, 금융위기 등에 따른 소비불안으로 소비 증가율은 더욱 둔화되어 2007년 2.4% 보다 훨씬 낮은 0.7%에 그치며, 2009년 6월 현재까지 마이너스의 소비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 개인 소비

개인 소비는 2005년, 2006년에 걸쳐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이후 이자율 상승과 주택 경기의 하락으로 냉각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2008년의 경우 임금 상승에 따라 개인 소득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주택 시장의 정체, 이자 비용 증가, 금융위기 등에 따른 소비불안으로 소비 증가율은 더욱 둔화되어 2007년 2.4% 보다 훨씬 낮은 0.7%에 그치며, 2009년에는 마이너스의 소비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 저렴한 가격을 좇아 소비를 하는 디스카운트족들이 증가했으며, 저가형 슈퍼마켓 및 온라인 매장이 급성장 하고 있다. 2009년에는 1,200 여 개의 디스카운트 매장이 1,400 여 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3) 재정수지

과거 몇 년간 GDP대비 5%대의 흑자를 보여왔던 공공부문은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일 가격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실업자 지원,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는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 투자 지출

경기 침체에 따른 추가하락, 높은 이자율, 신용경색 및 향후 부정적인 경제 전망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자산손실을 막기 위해 대출을 축소함으로써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2009년 에도 지속되어 신규 투자는 감소 추세이다.

5) 대외 교역

경기 후퇴 속에서도 2008년 전년 대비 1.9%의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수출 0.3%, 수입 0.6%의 감소를 보일 전망이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2008년도에 높은 수출, 수입 증가를 보인 것은 덴마크의 수출품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Danske Bank는 수출 감소세는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입도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감소로 다소 감소하다가 경기 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 고용 및 물가

2004년부터 지속된 경제 호황에 따라 실업자 수가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실업률 1.8%의 완전고용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함께 2008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실업자 수는 2009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7월 현재 실업률은 3.7%에 이르고 있다. 한편 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인 임금 상승,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 달러화 약세 심화에 따른 수입품 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8년 3.4%에 달하였으나 2009년에는 임금삭감,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으로 1.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전망
GDP 성장률	1.6	-1.3	-1.1
개인 소비 증가율	2.4	0.7	-1.1
정부 지출 증가율	1.3	0.3	1.6
총 고정 투자 증가율	5.9	-2.7	-3.5
수출 증가율	2.2	1.9	-0.3
수입 증가율	2.8	4.1	-0.6
물가 상승률	1.7	3.4	1.5
실업률	2.8	1.9	2.4
재정수지(% GDP 대비)	4.9	3.0	-0.5
경상수지(% GDP 대비)	0.7	1.7	1.4

주: US\$ 1 = 5.0986DKK(2008년 평균)

자료: 덴마크 중앙은행, 덴마크 통계청, Ministry of Finance 종합

나. 주요 경제 정책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득세 감면 및 복지제도 개혁

올해 덴마크 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경제 현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득세 감면과 복지제도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보수당 연합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복지분야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중산층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2010년까지 소득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당 측이 소득세 감면을 반대(국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 부담 감소만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스무센 총리는 소득세 감면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세의 인상을 추진할 것이며, 세제위원회가 세제개혁 보고서를 완성하는 대로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덴마크 정부는 올해 공공서비스 개혁,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자 증대 등 일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2009년 4월부터 근로자 연금(SP)을 미리 받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 총괄

덴마크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할 때 산업화가 늦은 편이다. 20세기 초반에 산업화가 시작되었으나 1930년대까지 만해도 덴마크는 1차 농업 생산 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였으며, 1950년대 말에 들어서 서야 공업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농산물을 앞서는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산업별 생산액 및 비중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74.6%로 가장 높고, 제조업은 21.4%, 농수산업 및 광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은 4.1%에 불과하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무역, 호텔, 요식업의 비중이 38.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11.7%, 운송, 우편, 통신업이 9.1%로 높다.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업이며, 다음으로 운송, 우편, 통신 분야로서 서비스 분야의 성장률이 높은 편이며, 제조업 성장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산업별 생산액 및 비중

(단위: DKK10억, %)

구분	2006		2007		2008		비중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농수산업 및 광업	126	7.71	131	3.97	142	8.40	4.18
제조업	654	7.44	699	0.07	729	4.29	21.47
에너지 및 수자원	123	9.69	111	-0.10	125	12.61	3.68
건설	200	15.99	224	0.12	225	0.45	6.63
무역, 호텔, 요식업	1,229	9.43	1,286	0.05	1,309	1.79	38.55
운송, 우편, 통신	317	11.49	338	0.07	369	9.17	10.87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328	7.71	367	0.12	398	8.45	11.72
공공 및 개인 서비스	88	2.44	95	0.08	99	4.21	2.92
총계	3,066	9.15	3,251	0.06	3,396	4.46	100

주: 2007년 이후 통계 미발표

자료: Denmark Statistics

덴마크 1차 산업은 주로 돼지, 닭, 소 등 낙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양 국가로서 수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광업은 북해에서 나오는 석유 외에 부존 자원이 거의 없어서 미미한 실정이다.

제조업은 고도 기술 제품 및 디자인 제품에 특화 되어 있으며 일반 소비재 생산은 많지 않다.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의약품, 식품 가공, 풍력 발전기, 기계 등 고도 기술 제품과 가구, 조명, 장식품 등 디자인 제품이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는 컨테이너 운송 등 해양 운송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는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나. 제조업

다른 산업 국가들과는 달리 덴마크 제조업은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없는 분야와 틈새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제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거대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제조 업체 중에서 수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 다국적 기업은 없으며, 덴마크에서 가장 큰 소수 몇 개사 정도가 종업원 1만 명 이상이고,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이 몇 천 명 수준이다. 이는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996개 사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덴마크 제조업이 발달한 분야는 제약, 풍력 발전, 식품 가공업, 엔지니어링, 가구 그리고 최근에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IT 전자 분야를 들 수 있다.

덴마크의 제조업은 의류, 식품 가공업, 금속 등 노동 집약 혹은 자원 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화학, 전자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고도 기술 및 know-how를 중시하는 산업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 많은 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자인, 기술 개발 등만 덴마크에서 하고 생산 시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웃 소싱 하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덴마크 업체들은 이미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덴마크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더라도 공장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 제조업체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으로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Novo Nordisk, 신경안정제를 생산하는 Lundbeck, 보청기의 Oticon, 냉난방 시스템의 Danfoss, 펌프의 Grundfos, 교육용 완구의 Lego, 선박용 보일러의 Allborg Industries, 풍력 발전기의 Vestas와 Siemens Energy, 소비용 전자제품의 Bang & Oulfsen 등을 들 수 있다.

1) 제약, 의료산업

덴마크의 의약품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성공적으로 성장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외레준트(Oeresund) 지역을 의약품 산업 및 BT산업의 클러스터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레준트 지역은 일명 Medicon valley라고도 불리는데 Copenhagen Capacity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생명공학 및 의약품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자국 기업 육성은 물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덴마크의 Novo Nordisk 등 세계적인 제약 회사가 위치해 있으며, 가장 활발하게 R&D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덴마크의 의약품 수출액은 2008년 기준으로 DKK415억(약 81억 달러)으로서 인구 1인당 의약품 수출액으로 계산할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

의약품 산업은 전체 매출액의 14%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어 전체 산업 중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 덴마크의 의약품 산업은 치열한 세계 시장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뛰어난 성장을 계속해 왔다. 덴마크 의약품 업계에서 생산하는 약품 수는 400여 종류가 넘으며, 이 중에는 인슐린 항생제 및 정신안정제 등의 생산이 많다. 특히 덴마크는 세계 인슐린 시장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제약분야 대표적인 회사로는 인슐린의 Novo Nordisk A/S, 신경정신계 의약품의 Lundbeck A/S, 피부치료제로 유명한 Leo Pharma A/S, 효소 및 미생물 분야의 세계 선두 업체인 Novozymes A/S 등을 들 수 있다.

의료기기 분야 대표적인 회사로는 세계 5대 보청기 회사에 드는 GN Resound A/S, Widex A/S, Oticon A/S가 있으며, 플라스틱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Coloplast A/S, Uno Medical A/S 등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 초까지는 미국에서 제품 개발을 위해 미국에 R&D센터를 적극 설립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 분야를 제외한 R&D분야 및 생산 분야를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아시아 지역에 R&D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들은 임상 실험과 관련된 분야를 중국이나 인도 등의 연구소를 통해 하는 아웃 소싱 전략을 택하기도 하고 있다.

2) 전자 산업

전자 산업은 덴마크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이나, 주로 산업용 전자제품, 기기 및 부품 생산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 산업의 총 매출액은 2008년 기준으로 DKK 995억(약 195억 달러)이었으며 전자 제품 수출은 2007년 기준으로 DKK 587억(약 108억 달러)에 달했다.

덴마크의 전자 산업은 TV나 냉장고 등이 생산되고는 있으나, 세계 규모로 볼 때 영세한 수준이며 오디오 업체 중에는 B&O사가 고급의 첨단 디자인 제품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나 다른 세계적인 기업은 없다.

반면 산업용 전자에서 보면 전기 모터 혹은 발전기, 사무용 기기 및 컴퓨터 장비 등과 같은 산업용 전자 장비의 생산이 전체 전자 제품 생산 라인의 1/2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관련 장비 및 계측 기기가 29.2%이고 나머지가 라디오, 전화기 및 보청기 등의 소비자용 전자 제품이다. 덴마크의 소비자용 전자 제품은 매우 독특하고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3) 풍력 발전 산업

덴마크에는 풍력 발전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Vestas 사와 Siemens Energy 2 개사가 있는데 이들이 전세계 시장의 36%를 장악하고 있다. Siemens Energy 의 경우 독일 Siemens 그룹이 덴마크의 Bonus Energy 를 인수하여 회사 명을 변경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발전기 날개 업체인 LM Glasfiber 가 있다. 2009 년 3 월 현재 세계 풍력 발전 분야 시장 점유율을 보면 Vestas(덴마크) 19%, GE Wind (미국) 18%, Gameza(스페인) 11%, Enercon(독일) 9%, Suzlou(인도) 7%, Siemens Energy (덴마크) 7%, 등이다.

한편 덴마크는 풍력 발전 기술 개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는 Wind turbine 생산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1980년대부터 직경 20m 짜리 로터를 지닌 20-60 KW 급에서 부터 직경 60-90m 짜리 로터를 이용한 2 MW 급 이상의 터빈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는 4.5MW 용량, 직경 112m 로터의 터빈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해안 발전용 터빈의 경우 더 큰 용량의 발전기와 로터를 사용하는 프로토타입 디자인도 소개되고 있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인데 덴마크가 전 세계 시장의 80~90%를 장악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의 경우 해저 심도에 강철 구조물을 설치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하며, 해상 발전기와 송전선망을 잇는 수십 킬로미터의 케이블을 설치해야 하고, 유지 보수를 위해 해상 발전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등도 필요하다. 따라서 해상 풍력 발전은 육상 풍력 발전기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 외에 "해상화"에 필요한 특수 기술 등이 필요한데 이는 바다의 염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하거나 바다의 거센 바람에 적합한 발전기 날개 제작, 발전기 유지 보수를 위한 Built-in 기술 등이다.

이처럼 덴마크가 풍력 발전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Gameza, 인도의 Suzlon, 독일의 Nordex 등이 덴마크에 기술 개발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풍력 발전 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현재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 풍력 발전기 총 수출액을 보면 2008 년 기준으로 DKK 42 억(8,300 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처럼 덴마크에서 풍력 발전 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첫째로 풍력 발전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시사철 바람이 많고 규칙적으로 불어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다. 풍력 발전은 원자력이나 화력에 비해 생산 단가가 높지만 덴마크 정부가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높은 단가로 구입해 주는 반면 환경을 감안하여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을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일찍부터 풍력 발전에 관심을 갖고 기술을 개발해 온 Vestas 와 같은 기업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덴마크가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조선소에 근무하였던 용접공 등 기술자들이 풍력 발전 업체로 옮겨온 것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가구 산업

2008년 현재 덴마크 가구 협회의 회원사로 가입된 중견 기업 이상의 가구 제조사만 해도 307개에 달하며, 소규모 가구 제조사를 포함할 경우 400개 이상의 가구 제조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덴마크의 가구 생산은 2가지 타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량 생산에 의한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소량 생산이지만 철저히 디자인에 의존하는 고품질의 가구 생산이다.

덴마크의 가구 산업은 내수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8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출 산업으로 이중에서도 50여 개의 대형 업체가 전체 수출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의 가구는 10대 수출 주종 품목에 속하며,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덴마크의 주종 수출 가구는 목재 테이블, 의자, 소파, 침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서비스 산업

덴마크는 선진 복지 국가로 이 전해 가는 과정에서 서비스 부문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전해 왔다. 따라서 2006년 기준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74.6%에 달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 중에서 공공 부문의 고용이 가장 큰데, 이들은 주로 공공행정, 보건, 복지 및 교육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서비스 산업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서비스 부문 고용 인원 중 약 절반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덴마크는 특히 해상 물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A.P. Moller그룹의 계열사인 머스크사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송사로서 2008년 현재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IT 및 생명공학 부문의 연구 인력도 매우 풍부하여 Hewlett-Packard, IBM, Siemens 등 다국적 기업들이 덴마크를 연구개발기지 또는 e-commerce 센터로서 투자 진출을 하고 있다.

또한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대형화 및 국제화의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덴마크의 Unibank가 핀란드의 Merita Bank, 스웨덴의 Nordbanken, 노르웨이의 Christiania Bank Og Kreditkasse은행들과 합병을 통해 2001년 12월 북구 및 발트해 연안 내 최대의 금융 보험 서비스 그룹인 Nordea로 태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덴마크의 ISS (International Service System)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청소업체이며, Sophus Berendsen은 대형의 세탁업체이자 수압 장비 제조업체로서 영국의 Rentokil사의 모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라. 농림수산업 및 광업

덴마크는 공업 국가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전체 국토의 61.9%가 경작지로서 전통적인 농축산업 생산은 물론 이와 연계된 식품 가공 산업에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세계 최대의 돈육 수출국이며, 또한 밍크 모피의 세계적인 생산국이자 집산지이기도 하다.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덴마크의 농업 및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선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차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 운송 및 기타 판매를 위한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식품 및 음료 생산업은 덴마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기준으로 11.7%에 달할 정도로 크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유가공업체나 도축업체는 협동조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소속 조합원인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 육류 연구소(Danish Meat Research Institute)와 같은 협동조합 기구들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농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돈육 산업이다. 덴마크의 돼지 사육 수는 2,500만 마리로서 덴마크 인구 1인당 평균 돼지 보유수가 5마리에 달하고 있으며, 순수한 돈육(신선 육, 냉장 육, 냉동육 등) 수출만도 2008년 기준으로 DKK 289억 (약57억 달러)에 달해 덴마크 전체 수출의 5%를 차지할 정도로 돈육 산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덴마크 돈육은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 받고 있어 유럽은 물론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8년 기준으로 약 4,670만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덴마크 양돈 및 도살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덴마크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양돈을 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등으로 투자 진출까지 할 정도이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지역 협력체 참여 현황

1) EU 회원국

덴마크는 1972년 국민 투표에 의해 EC가입을 결정하고 1973년1월 1일부로 EC회원국 이 되었다. 그 후 EU가 출범하면서 EU 회원국이 되었으나 에든버러 협정에 의거 통화 단 일화, 공동 방위 정책, 유럽 시민권, 공동 경찰 사법 정책 4개 항에 대해서는 예외(Opt-out)를 인정받고 있다. 덴마크가 EU 회원국이 된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 1972년: 국민 투표에 의해 EC 가입 결정(1973.1.1일자로 EC 가입)
- 1986년: 국민 투표에 의해 Single European Act 비준
- 1993.5.13일: 국민 투표에 의해 구주 연합 조약 비준(찬성 56.8%)
- 2000.9.28일: EURO화 가입 여부 국민 투표 부결

현 정부는 완전한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에든버러 협정에 의거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4개 조항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 가부를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2) 북구 각료 이사회 회원국

덴마크는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연계성에 따라 2차 대전 후 북구 제국 간의 협력을 제창 하였고 1952년 북구이사회(Nordic Council)와 1971년 북구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가 창설되면서 북구 5개국(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간의 의회 및 정부 차원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덴마크는 북구 5개국 중 스웨덴, 핀란드와 함께 EU에 가입한 국가로서 북구 협력과 EU는 이해 상충보다는 보완적인 협력 분야가 많다고 보고 양 기구 간 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덴마크는 EU회원국으로서 다른 나라와 독자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EU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현재 EU 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자유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27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덴마크는 EU회원국 중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FTA를 지지 하는 입장이다. EU와 양자간에 FTA를 체결한 국가는 알제리, 칠레, 크로아티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모로코,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튀니지이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는 EFTA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다.

한국과는 2007년 5월 7일부터 FTA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7월, 한-EU FTA가 체결 되었으며, 현재는 발효를 앞두고 있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동향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수출이 1,167억만 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은 1,101억만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 수지 흑자가 65.8억달러에 달했다.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상반기
수출	92,636	102,821	116,689	43,861
	(9.0)	(11.0)	(13.5)	(-28.9)
수입	85,580	98,666	110,106	40,930
	(11.0)	(15.3)	(11.6)	(-29.9)
수지	7,056	4,155	6,583	2,931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임

자료: World Trade Atlas

나. 수출

순위	HS Code	수출 품목	2007	2008	2009년 상반기
1	84	기계류	11,536	14,340	5,925
2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10,466	10,456	3,707
3	85	전기기기, TV, VTR	9,454	9,805	3,548
4	30	의료용품	5,895	6,872	3,506
5	02	육류	4,469	4,758	2,132
6	90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3,643	4,376	1,958
7	03	어패류	2,919	3,070	1,298
8	73	철강제품	1,959	2,383	1,269
9	94	가구류, 조명기구	3,296	3,470	1,221
10	87	일반 차량	2,458	2,875	1,206
수출 총액			102,821	116,689	43,861

자료: World Trade Atlas

주요 수출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수출 대상국	2007	2008	2009 상반기
독일	16,871	20,158	7,604
스웨덴	14,690	16,560	5,509
영국	7,588	9,064	3,386
노르웨이	5,720	6,549	2,525
미국	5,436	5,698	2,400
프랑스	4,655	5,210	1,950
네덜란드	4,759	5,242	1,945
이탈리아	3,233	3,452	1,391
스페인	2,949	3,109	1,244
핀란드	2,841	2,839	1,088

자료: World Trade Atlas

다. 수입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 Code	수입품목	2007	2008	2009 상반기
1	84	기계류	13,840	14,753	5,356
2	85	전기기기, TV, VTR	10,671	10,747	4,026
3	87	일반 차량	8,926	8,498	2,680
4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4,987	8,170	2,479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416	4,756	1,711
6	89	선박	548	2,052	1,538
7	30	의료용품	2,848	3,239	1,474
8	73	철강제품	3,088	3,703	1,325
9	90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2,807	3,056	1,262
10	03	어패류	2,229	2,315	969
수입 총액			98,666	110,106	40,930

주: HS Code 2자리

자료: World Trade Atlas

주요 수입 국가

(단위: 백만 달러)

수입 대상국	2007	2008	2009 상반기
독일	3,652	4,181	1,536
스웨덴	1,952	2,037	725
네덜란드	968	970	365
벨기에	625	830	307
중국	545	641	285
영국	845	893	273
이탈리아	912	858	270
프랑스	614	603	200
미국	442	453	169
노르웨이	345	334	163

자료: World Trade Atla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연도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 덴마크 수출은 90.7%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2004년 이후 연 6.2~6.5억 달러 규모를 유지해 왔다.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주로 자동차와 선박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며 따라서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무역 수지도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2007년에 우리나라의 대 덴마크 수출은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과 현대의 중형차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승용차 수출 감소, 무선전화기 등의 인근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한 반면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은 돈육, 의약품, 화학 기계, 선박 부품, 조립식 완구, 보일러 등이 호조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상반기
수 출	639	620	653	462	408	400
	(90.7)	(-2.8)	(5.3)	(-29.2)	(-11.7)	(42.9)
수 입	471	560	574	701	709	353
	(16.6)	(18.8)	(2.7)	(22.0)	(1.1)	(-21.3)
수 지	168	60	79	-238	-301	47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World Trade Atlas

나. 한국의 대 덴마크 수출 품목

2008년 기준 우리 나라의 대 덴마크 수출은 전년 대비 11.7%가 감소한 4억 83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 및 부품, 기계류, 전자기기, 주단강, 발전기 등이다.

한국의 대 덴마크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 Code	품목	2007	2008	2009 상반기
1	89	선박	0	0	249,754
2	84	기계류	128,205	115,394	45,490
3	85	전기기기, TV, VTR	73,088	71,870	23,188
4	87	일반 차량	147,240	107,819	22,569
5	73	철강제품	36,078	50,040	21,952
6	40	고무와 그제품	16,694	10,867	6,175
7	39	플라스틱과 그제품	14,235	10,026	5,588
8	90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6,010	6,336	2,810
9	28	무기화합물	147	816	1,783
10	13	식물성 엑스	2,072	3,012	1,655

주: HS Code 2자리

자료: World Trade Atlas

다. 한국의 대 덴마크 수입 품목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은 2008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7억 909만 달러를 기록 하였으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의약품, 가축육류, 선박용 엔진 및 부품, 가열난방기, 펌프 등이다.

한국의 대 덴마크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 Code	수입 품목	2007	2008	2009 상반기
1	84	기계류	246,171	281,233	141,371
2	85	전기기기, TV, VTR	101,146	76,038	60,259
3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54,768	52,495	25,647
4	30	의료용품	47,102	55,342	18,238
5	35	카세인,알부민, 변성전분,효소	25,022	35,287	15,224
6	43	모피, 모피제품	24,402	15,565	13,180
7	02	육류	51,512	40,368	12,647
8	95	가구류, 조명기구	15,630	13,789	10,648
9	16	육,어류 조제품	8,869	12,680	9,336
10	73	철강제품	11,871	16,699	5,822

주: HS Code 2자리

자료: World Trade Atlas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조치

덴마크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지고 있다.

□ 반덤핑 관세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반 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덴마크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2009년 5.20일 기준,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다음과 같은 5개 품목이다.

구분	조치 유형	대상 품목
규제 중	반덤핑 관세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PET칩,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우회 덤핑 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5. 관세제도

가. 개요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덴마크는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 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증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덴마크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덴마크 경우에는 25%가 적용됨)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 (excise)가 부과된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 목	규정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09년 5월말 기준 19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8개 제품군에 대해 기준 제·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은 품목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제정된 품목도 계속해서 기준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다목적 세제 및 위생 시설 세척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손씻기이용 세제, 세탁용 세제, 비누와 샴푸, 식기 세척기,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TV, 진공 청소기, 세탁기, 복사용지, 토양개선제, 신발, 관광사이트서비스, 관광시설 서비스, 형광등
- 기준 제·개정 추진 품목: 히트펌프, 인쇄물, 목재 가구, 티슈, 매트리스, 바닥 깔개, 실내 페인트 및 안료, 석유 제품 등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램프, 전기 오븐, 에어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p>Energie Hersteller Modell Niedriger Energieverbrauch A B C D E F Hoher Energieverbrauch G Energieverbrauch: kWh/Waschprogramm Wasserverbrauch: l Geräusch dB(A) re 1 pA</p>	<p>□ 개요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p> <p>□ 대상 품목 ○ 라벨 표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10품목) ○ 최저 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p> <p>□ 시행 기관 EU위원회(EU Commission)</p> <p>□ 근거 법령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p>
---	--

<p>▶GEEA</p> 	<p>□ 개요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 운영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라벨 사용</p> <p>□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19품목)</p>
--	---

<p>▶Energy 2000</p> 	<p>□ 개요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p> <p>□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15품목)</p> <p>□ 시행 기관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p>
---	--

7. 지적재산권

가. 개요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EU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되어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이 그것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각 회원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는 동시에 여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차원 에서 통일된 제도의 경우에도 자국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를 병행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허권

덴마크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덴마크에서 실시되고 있는 PATENT AMENDMENT ACT(1978) 특허제도이며, 둘째로는 유럽특허청을 통해 특허를 허락 받는 방법이다. 유럽특허청을 통해 취득하는 유럽특허제도의 경우 출원인이 지정하는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특허제도는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제도와 별도로 현재 공동체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체 특허제도란 하나의 출원을 통해 등록 받은 특허로 EU 회원국 전체 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특허의 무효 또는 침해에 대한 재판도 공동체 특허법원이 전담하는 개념이다.

다. 상표권

덴마크를 포함하여 EU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이다. 먼저 각 개별국가의 상표보호 담당관청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권리를 행사하는 소위, 국별 상표권이다. 다음으로는 유럽공동체 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이용하는 유럽공동체상표이다.

공동체 상표제도는 회원국 특허청이 자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상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기존의 상표제도와 병행하도록 하여, 기존의 국가별 등록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표장은 문자, 도형 등은 물론이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인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동작상표 등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 상표에 대해서는 EU회원 국내에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고 등록후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체상표 출원은 공동체 상표청, 회원국의 특허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을 통해 출원이 가능하며 EU 회원국 언어로 출원하되, 공동체 상표청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지정해야 한다.

라. 디자인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체 상표청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동체 디자인은 물품 자체의 선, 윤곽, 색채, 형상, 질감, 재질 및 장식의 특징 등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디자인이 출원일로부터 5년간 단위로 연장하여 가장 25년까지 보호된다.

마. 저작권

EU는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하였다. 음반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자에 대한 재판매권도 보호되어 판매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격에 대한 재판매권 부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재판매권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7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역시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70년간 보호된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1) 통관 절차

덴마크 기업 또는 개인이 EU국가 및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외의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관세는 원산지 및 제품의 종류에 따라 증가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증가세를 보완하여 종량세 기준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세율은 EU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세 구역에 보관 중이거나 제3국 운송을 위해 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 25%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주류, 담배, 초콜릿, 커피 및 차, 비디오 테이프 등의 제품에는 소비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입항 전 또는 직후 모두 가능) → 입항 → 하선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심사 → 물품 검사 → 세금 납부의 순이다.

EU 국가 이외에서 제품이 수입되어 덴마크 국경에 도착할 경우 운송업자는 이를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입업자는 제품, 원산지, 수량 등이 명기된 수입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수입 신고서, 상업 송장 사본, Packing List가 필요하며, 제품의 종류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하며, 수입 허가 품목일 경우는 수입 허가증이 필요하다.

수입 업자가 세관 당국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자신이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 등 세금 납부는 그 다음달 16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반면 등록된 수입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통관 시 이를 납부하여야 제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 등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고 있다.

- 세관 연락처
 - 기관 명: Toldcenter Copenhagen
 - 주소: Snorregadesgade 15, DK-2300 Copenhagen S.
 - Tel: (+45) 3288 7300, Fax: (+45) 3295 1874
 - Web: www.toldskat.dk

2)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최근 전자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세관은 물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물품 검사 요원들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나. 운송

1) 국제 공항

□ KASTRUP

코펜하겐 남쪽 10Km지점에 위치한 국제 공항으로 택시 이용 시 15분 정도면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1999년 초에 공항 증축이 완료되어 복구 최대의 허브 공항이 되었다.

□ BILLUND

JUTLAND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제 공항으로 인근에 조립식 완구로 유명한 LEGOLAND가 위치하고 있다.

□ AARHUS

제 2대 도시인 AARHUS 외곽에 위치한 공항으로 택시 이용 시 도심까지 40분 정도 소요 된다.

2) 국제 항구

- 국제 항구: COPENHAGEN, AARHUS, ESBJERG, HELSINGOER, FREDERIKSHAVN
- 북극과 교역 항구: COPENHAGEN, HELSINGOER, AARHUS, FREDERIKSHAVN
- 영국과의 교역 항구: ESBJERG

3) 한국과의 운송

□ 주로 이용되는 항구

한국과 운송 시 이용되는 덴마크 항구로는 COPENHAGEN, AARHUS가 많이 이용되며,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등의 항구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덴마크까지 운송되는 경우도 있다.

□ 컨테이너 비용(2008년 기준)

COPENHAGEN항구에서 부산항구, AARHUS 항구에서 부산항구까지 컨테이너 비용은 동일하며, 비용은 아래와 같다. 이 비용은 항구에서 항구까지만을 계산한 것이며, 여기에 핸들링 비용, 운송 비용 등이 약 600달러 정도가 추가된다.

(단위: 달러)

구분	20 피트 컨테이너	40 피트 컨테이너
Basic Price	400	500
BAF	517	1,034
CAF	Basic price의 17.7 %	Basic price의 17.7 %
총계	1,079.31	1,805.52

- 덴마크에서 한국까지의 컨테이너 운송 기간: 약 45일

다. 운송 에이전트

- Modul Transport A/S
 - 주소: Vallensbaekvej 20A, DK-2605 Brøndby
 - Tel: (+45) 4342 6800
 - Fax: (+45) 4342 6658
 - E-mail: lasse@modultransport.dk
 - Web: www.modultransport.dk
 - 담당자: Mr. Lasse Jensen
- NTN Denmark A/S
 - 주소: Turbinevej 11, DK-2730 Herlev
 - Tel: (+45) 4488 1020
 - Fax: (+45) 4488 1021
 - Web: www.n-t-n.dk
 - 담당자: Mr. Jan Carstens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매력도

경제 분석 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World Investment Prospects to 2011” 보고서에서 덴마크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로 평가한 바 있으며 2008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전 세계 121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별 기업 환경 분석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덴마크의 기업 투자 환경은 안정되어 있다.

덴마크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일반 국민들도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구별하지 않으며,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덴마크 기업으로 인정할 정도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개방적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 인수 합병이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덴마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밖에도 덴마크 및 북구 시장을 겨냥한 판매법인, R&D 센터 등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하는 물가 및 임금으로 인해 덴마크 기업들조차도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조업 투자지로서는 매력이 없는 편이다.

나. 투자지로서의 장단점

1) 장점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덴마크 투자 환경을 가장 좋게 평가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이다.

첫째, 최근에 실시한 노동 시장에서의 개혁 조치로 인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한층 제고되었고, 노동자의 교육 수준도 한 차원 높아진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주 요인이다.

두 번째로는 신중한 재정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와 국가 채무를 감축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번째로는 세법을 보다 단순화한 조치와 2007년부터 실시된 지방 정부의 개혁 조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방 정부의 개혁 조치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는 덴마크의 금융 시스템이 매우 투명하고, 강한 은행 분야로 전문화 되어 있으며, 코펜하겐에 있는 증권 거래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세계 최고 중의 하나라고 알려진 운송 시스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 번째는 수도인 코펜하겐이 소재한 질랜드 섬과 저틀랜드를 다리로 연결함으로써 독일까지 연결되고, 코펜하겐과 스웨덴을 다리로 연결함으로써 덴마크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노르딕 국가는 물론 중앙 및 동구 유럽 국가의 물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EIU는 인근 EU국가와 비교할 때도 덴마크가 정치 및 제도적 환경, 국가 경제의 안정성, 비즈니스 관련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칙, 인프라, 금융 부문의 건전성 등 6개 분야가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2) 단점

첫째로는 제도 및 법규 측면에서의 단점은 거의 없으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 및 임금이 투자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법인세가 25%로 EU 평균보다 다소 높으며, 개인 소득세도 평균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이 문제이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최근 투자 동향

지역별 투자 현황

(단위: DKK 십억)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U (EURO지역)	-11.7 (-8.4)	56.5 (34.6)	28.9 (23.8)	18.9 (9.3)	110.5 (54.7)
(스웨덴)	(-0.3)	(2.7)	(9.6)	(0.0)	(43.1)
(영국)	(-3.2)	(19.6)	(-7.8)	(0.4)	(7.2)
기타 유럽 EEA 및 스위스	-	13.9	13.5	32.4	-9.4
기타	-	0.7	14.0	1.4	4.3
미주 (미국)	1.3 (1.1)	-4.4 (0.8)	12.6 (10.3)	27.4 (12.0)	25.0 (17.9)
아시아	2.1	7.6	9.9	17.2	2.7
기타	-	3.6	3.2	0.5	3.6
총계	-3.3	77.9	82.1	97.8	136.7

주: 상기 수치는 순 투자 유치 개념으로 연도 중 덴마크에 투자된 금액에서 철수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자료: 덴마크 중앙은행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DKK십억)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수산업 및 원자재	-1.2	27.5	1.5	4.8	5.2
제조업	0.2	9.2	19.1	11.4	96.6
무역, 호텔, 식당	-10.1	0.2	2.3	-10.0	7.8
수송 및 통신	-5.7	28.1	13.5	6.2	16.5
금융,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4.1	1.6	41.6	89.3	1.3
기타	9.4	11.3	4.1	-3.9	9.3
총계	-3.3	77.9	82.1	97.8	136.7

주: 상기 수치는 순 해외 투자 수치로 연도 중 해외에 투자한 금액에서 철수한 금액을 상계한 수치임.

자료: 덴마크 중앙은행

덴마크의 외국인 투자는 기 투자액의 철수가 신규 유입보다 많았던 2004년을 제외하고는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은 IMF 기준에 따라 Equity Capital의 이전은 물론 투자자와 외투 기업 사이의 Loan Capital의 이전까지도 감안하여 외국인 투자 통계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 덴마크의 외국인 투자는 DKK 520억에 달하였다.

지역별 덴마크 투자 동향을 보면 전통적으로 EU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으며,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투 기업을 보면 대부분 유럽 및 미국계 기업들이며,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 이것은 지리적 여건의 영향도 있지만 덴마크의 경우 시장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반면 물가는 비싸기 때문에 아시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경우 투자가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업종별 투자 동향을 보면 매년 변동이 심하나 전통적으로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편이다.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가 높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나. 덴마크 내 주요 외국 기업

덴마크의 경우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조업을 위해 투자한 유명 외국 기업이 많지 않으며, 판매업은 세계 유명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만 일부는 독일이나 스웨덴 법인에서 덴마크 시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외국 유명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는데, 제약, IT분야를 중심으로 R&D활동을 위해 진출한 기업과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를 위해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 유통체인은 모두 미국과 유럽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덴마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업명
제조업	Siemens(독일, 기계), Statoil(노르웨이, 석유), Nestle(스위스, 식품), MAN(독일, 선박엔진), Royal Shell(화란, 석유)
판매업	Proctor & Gamble(미국, 생활용품), Toyota(일본, 자동차), Loreal(프랑스, 화장품), BASF(독일, 화학), Philips(화란, 전자), Philip Morris(미국, 담배), Matsushita (일본, 전자), Eli Lilly(미국, 제약)
서비스 및 금융	DHL(미국, 운송), UPS(미국, 운송), Oracle(미국, 소프트웨어), IBM(미국, IT 서비스), GE(미국, 금융), DeutscheBank(독일, 금융), Citibank(미국, 금융)
R&D	Microsoft(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Ferring(스위스, 제약), Siemens(독일, 기계)
유통 체인	Lidl(독일, 슈퍼체인), Bodyshop(영국, 미용 및 피부관리), 7 Eleven(미국, 편의점), ToysRus(미국, 완구), IKEA(스웨덴, 가구)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 기업 투자 동향

우리 기업이 덴마크에 투자한 것은 2009년 3월 말까지 총 10건에 184만 7,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2001년 이전에 투자된 것이 2건 10만6,000달러이며, 그 이후 2003년에 1건 20만 달러, 2006년에 3건 139만 8,000달러, 2007년에 4건 14만 3,000달러가 투자되었다.

2001년 이전에 투자된 2건의 경우 실체가 정확하지 않고, 2003년에 20만 달러는 ADVANCED VEHICLE MANAGEMENT AS에 투자된 것이며, 2006년에 투자된 3건은 요식업에 대한 지분 투자 20만9,000달러, 덴마크 회사에 지분 투자가 17만1,000달러, Cell Biotech이 법인 설립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 101만8,000달러다. 2007년에도 투자된 것도 소액으로 실제 한국인이 파견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 덴마크에 직접 투자 없이 지사 또는 연락 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한국선급, 대한항공, 두산 중공업, 엠텍비전, 서울반도체 등 5개사이다.

우리 기업의 대 덴마크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03년까지 누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투자 건수	3	0	0	3	4	0	10
투자 금액	306	0	0	1,398	143	0	1,8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나. 우리나라 투자기업 리스트

□ 투자 기업

회사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투자진출시기
Cell Biotech Europe	Cell Biotech	판매법인	유산균	90.9	2	2006

□ 지사 및 연락 사무소

회사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진출시기
한국선급	한국선급	연락사무소	선박 및 기 자재 검사	-	1	1995
두산엔진	두산엔진	연락사무소	선박엔진	-	2	2000
대한항공	대한항공	지사	항공화물	-	8	2004
엠텍비전	엠텍비전	지사	핸드폰부품	-	1	2007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지사	LED	-	2	2007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 유치 관련 법규

외국인의 덴마크 내 투자와 관련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도 덴마크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간 법적 지위, 권리, 의무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나. 외국인 투자 장려, 금지, 제한 분야

1) 장려 분야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장려하는 분야는 없으나 실업률이 높고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 금지 분야

덴마크는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는 없다.

3) 제한 분야

석유 시추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제한 분야가 있지만 이것은 외국인 투자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제한분야는 없다.

다. 투자 인센티브

덴마크의 투자 유치 정책은 내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을 막론하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나 외자에 대한 특별한 우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으며 덴마크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된다.

덴마크 정부의 투자 장려 정책은 일반적인 장려 정책이 아닌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지역 보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일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지며, 활동 보조는 주로 수출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산업 부문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대부분의 장려 정책은 저리의 대출 혹은 정부 보증과 같은 금융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당국과 협의하여 저가로 토지를 제공받거나 혹은 신 공업 단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1) Growth Fund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덴마크 정부는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Growth Fund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금은 세가지 형태로 지원되는데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의 형태이다.

직접 투자는 중소기업이 유망하지만 아주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은행 또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이 Fund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대출은 연간 매출액이 4,000유로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250명 이하인 기업이 유망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총 소요 자금의 45%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보증은 최소 연간 매출액이 4,000만 유로 이하이면서 종업원이 100명 이하인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2/3에서 1/2까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2) 세제 우대

덴마크 내의 혹은 덴마크의 특정 지역 내의 외국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 우대 제도는 없다.

3) 금융 지원

덴마크 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도는 없다. 다만 덴마크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현지 금융 및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덴마크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내국 및 외국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신용 및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담보 용자 기관이나 은행을 통하거나 혹은 연금 관리 회사 및 투자 회사를 통하여 장기 신용이 가능하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 진출 형태

덴마크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식회사(A/S), 유한회사(ApS), 지사 (Udenlandsk filial, Branch office), 연락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치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구분	A/S	ApS	Branch	Representative office
적용	대규모 및 중간 규모 회사에 적합하며, 덴마크 주식시장에 등록 가능	중소 규모의 회사에 적합	본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덴마크에서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태	덴마크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사용
등록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 에 등록 필요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에 등록필요	Danish Commerce and Company Agency에 등록 필요	등록 불요
자본금	최소 DKK 500,000	최소 DKK 125,000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조세 목적상 본사가 최소 DKK 125,000 이상의 자본금 서류 제출 필요	요구 사항 없음
책임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출자 주식의 가치 범위 내	지사의 본사가 전적으로 책임	외국의 모회사
경영	반드시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최소 1명의 사장이 필요	이사회 또는 사장이 운영 가능하며, 양자가 모두 있어도 무방	최소 1명의 지사장 등록 필요	요구 사항 없음
회계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회계사가 감수한 연간 회계보고서 필요	지사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본사의 연간 회계 보고서 사본 제출 필요	연간 회계보고서 준비 불요
세금	법인세 25%	법인세 25%	덴마크 지사로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25%	덴마크 내에서 판매 및 A/S활동을 하지 않으면 항구적인 설치로 간주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음
적용법	The Danish Act on Public Limited Companies	The Danish Act on Private Limited Companies	The Danish Act on Public Limited Companies	적용되는 법 없음

나. 설립 절차

덴마크에 새로운 회사나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근무 예정자가 덴마크인이 아닐 경우에는 Residence 및 Work permit이 필요, ② 덴마크 기업청에 기업 등록, ③ 세무 당국에 기업 등록, ④ 은행 계좌 개설, ⑤ 적합한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사 고용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변호사를 고용하게 될 경우 ②~⑤단계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변호사를 구할 경우에는 www.copcap.com/composite-758.htm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상기에 언급한 5가지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www.copcap.com/publications 의 "Fact Sheet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① 체류 허가(Residence permit) 및 노동 허가(Work permit) 절차

외국인이 덴마크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허가 및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 및 노동 허가에 대한 조건은 개인의 국적에 따라 내용이 상이한데 EU 회원국의 국민이 아닐 경우에는 덴마크에 도착하기 전에 체류허가 및 노동 허가 모두를 받아야만 하고, EU 회원국 국민은 덴마크에서 최대 3개월까지 체류 허가나 노동 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며, 노르딕 국가의 경우에는 체류나 노동 허가 없이도 덴마크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덴마크 거주 희망자는 국민 등록(덴마크어로는 Folkeregisteret)을 해야 하는데 일단 국민 등록이 되면 개인은 자동적으로 국가 의료 서비스에도 등록이 되며 CPR 번호(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도 부여 받게 된다.

CPR 번호를 받게 되면 덴마크에서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www.nyidanmark.dk/en-us/citizenship/citizen_in_denmark의 "Health & Sicknes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비 EU 회원국 국민을 위한 신청 절차

비 EU 회원국 국민은 최근 3개월간 자신의 영주 또는 법적 거주 국가 내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체류허가 및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자가 이미 덴마크에 법적 거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덴마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지위, 고용 조건(급여, 근로 시간, 주요 업무 등)이 명시된 고용 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원, 관리자, 컨설턴트, 교육자와 엔지니어, 의사, 간호사, 운동 선수, 운동 코치, 건축가와 같은 전문 직종 종사자, 그리고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거주 및 노동 허가가 발급된다. 체류 및 노동 허가를 받기까지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상 소요된다.

□ 덴마크에서 독립 무역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

덴마크에서 독립 무역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자의 교육 이력(학력)
- 신청자가 설립을 원하는 비즈니스의 본질 또는 특징
-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덴마크 거주 기간 동안 신청자 및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 수단

□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체류 및 노동 허가 신청(Job Card Scheme)

2002년 7월 1일부로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 법이 발효되었는데 과학.기술 부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덴마크 기준에 상응하는 고용 조건에 따라 취업 제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으로 이민국에서 거주 및 노동 허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거주 및 노동 허가 기간

원칙적으로 비 EU 국가의 전문 직종 종사자들은 최대 3년까지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한번에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노동 허가는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며 회사 설립자의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년 기간을 연장 신청해야 한다.

추가적인 사항은 www.copcap.com/content/us/living_working/working_in_copenhagen/ 의 "Work and residence permit"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유용한 연락처: 덴마크 이민국(The Danish Immigration Service, Udlændingestyrelsen)
 - 주소: Ryesgade 53, DK-2100 Copenhagen Ø, Denmark
 - 전화: +45-3536-6600
 - Fax: +45-3536-1916
 - 홈페이지: www.udlst.dk
 - e-메일: udlst@udlst.dk

② 기업청에 기업 등록

덴마크 내 모든 기업은 등록되어 CVR번호(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아야만 하며 CVR 번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관공서와 연락할 때 빈번하게 사용된다. 기업의 등록 및 CVR 번호 발급은 덴마크 기업청(DCCA, The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에서 하고 있다.

덴마크 기업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의 공개 주식회사와 같은 A/S(Aktieselskab, public limited company), A/S보다 규모가 작은 ApS(Anpartsselskab, private limited company), 그리고 지사(Udenlandsk filial, branch office)로 나눌 수 있다. 여러 변호사들이 기업 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1~2일 정도이다.

연락사무소(Repræsentationskontor, representative office)의 경우에는 기업 등록이 불필요하며 대신 인보이스 발급을 할 수 없고 활동 범위도 오더 수주, 덴마크 제품 구매, 기타 관리 업무 등 시장 개발 업무로 제한된다.

□ A/S 및 ApS 기업 등록

덴마크에서 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예정 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며 정보들은 기업 등록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면 된다.

- 영업 시작일
- 회사명 및 덴마크 내 주소

- 사장 및 이사회, 경영진 구성원 이름 및 주소(A/S의 경우에 해당하며 만약 덴마크인이 아닐 경우에는 여권 사본 필요)
- 회계사 이름 및 주소
- 회사 정관 및 회계 연도
- 기업 설립 목적
- 서명자에 대한 회사 조항 (공동의 이사회는 항상 이사회의 서명으로 기업에 대한 법적 기업력을 가질 수 있음)
- 자본금(A/S의 경우 500 천 DKK, ApS의 경우는 125,000DKK)

기업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 기본 정관
- 기본 정관 작성에 쓰인 참고 자료
- 초기 자본 납부 증명서(구좌 증명서, 회계사 혹은 변호사로부터 공증된 서류)
- 기업 설립 참여 인들의 회의 기록 발췌문(가능한 경우)
- 소유권 증서, 재산권 교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사 설립 및 등록

만약 모기업이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미국, 에스토니아, 호주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덴마크에서도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국가에 모기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모기업은 등록 신청서와 함께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증명 서류를 보내야 한다.

지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지사 설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 지사의 관리자 이름과 주소, CPR 번호
- 모기업체 대한 기본 정보
- 모기업 통제권을 규제하는 조항
- 지사 통제권을 규제하는 조항
- 모기업의 설립 목적
- 지사 설립 목적
- 모회사의 자본금

지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 해당 기업이 모국에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공증서
- 회사 정관
- 지사 관리자, 대리 위임장 소유자, 서명권자에 대한 정보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복사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공인된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 기업 등록 소요 시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청은 해당 기업을 등록 후 CVR 번호를 부여하는데 소요 시간은 약 1~2주 정도 걸린다. 기업청은 이후 CVR 번호를 국세청(CCTA, The Central Customs and Tax Administration)에 보낸다.

기업청과 국세청은 일년에 한번 감사를 거친 연차 보고서의 송부를 요청하는데 기업 설립 초기 단계 때부터 회계사를 고용하여 연차 보고서에 대한 필요 정보에 대해 조언을 받아야 한다.

코펜하겐 지역의 공인 회계사 정보는 www.copcap.com/composite-758.htm의 "Accounts" 에서 검색 할 수 있다. 기업 등록을 위한 신청 양식은 <http://www.eogs.dk/sw21281.asp>에 있으며 공개회사에 대한 법률 정보(영어 버전)는 <http://www.eogs.dk/sw30295.asp> 에서 검색 가능하다.

- 유용한 연락처: 덴마크 기업청(The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Erhvervs-og Selskabsstyrelsen)
 - 주소: Kampmannsgade1, 1780 København V, Denmark
 - 전화: +45-3330-7700
 - Fax: +45-3330-7799
 - 홈페이지: www.eogs.dk
 - e-메일: eogs@eogs.dk

③ 국세청에 기업 등록

덴마크 기업청 등록 후에는 국세청에도 VAT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서는 각 지역별 세무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국세청 등록은 기업 활동이 시작되기 최소 8일 전에는 신청해야만 하는데 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8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신청은 www.cvr.dk에 소개된 절차를 따르면 되며, 신청서 제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 기업의 활동 내용 및 자산
- 종업원 수
- 근로 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일 경우 주당 근무 시간)
- 최초 근로자 고용일
- 발기인들의 이름과 주소, 외국 기업 등록 번호

이외에 현금 예금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기업의 서명자와 기업 등록 회계사 혹은 공인 회계사의 인증이 필요하다. 일부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VAT가 면제되거나 VAT를 납부하는 대신 지불 급여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불 급여세는 전체 지불 급여의 약 5~9% 수준이다.

국세청은 신청서 검토 후에 VAT 및 기타 세금에 대한 법률과 절차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 주는데, 덴마크 세금 구조에 대한 내용은 www.copcap.com의 "Taxation" 에서 검색 가능하다.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VAT를 납부한다.

- 연 매출액 1,000 만 DKK 이상인 경우 매월 신고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55 일이다.
- 연 매출액 100 만~1,000 만 DKK 인 경우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40 일이다.
- 연 매출액 0~100 만 DKK 인 경우 격년 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60 일이다.
- 유용한 정보
 - 세금 관련 문제 www.copcap.com/publications "Taxation"
 - VAT 및 기타 세금 조건 www.skat.dk
 - 세무 당국 등록 신청서 <http://www.skat.dk/SKAT.aspx?old=213873&vld=0&x=US>
 - 가까운 세무서 찾아보기 <http://www.skat.dk/SKAT.aspx?old=349004&vld=0>
- 국세청(The Central Customs & Tax Administration, Told og Skat)
 - 주소: Østbanegade 123, 2100 København Ø
 - 전화: +45-3529-7300
 - 팩스: +45-3543-4720
 - 홈페이지: www.skat.dk

④ 은행 계좌 개설

은행구좌 개설을 위해서는 시중 은행에 구비되어 있는 기업 구좌 개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국 내 주거래 은행의 레퍼런스도 첨부해야 한다.

은행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 서명 날인된 위임장
- 기업 등록 확인서 사본(기업 명, 등록 번호, 주소)
- 회사 정관 및 합의 각서 사본
- 회사를 대신하여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은 자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이사회 의사록
- 실 소유자 및 회사 대리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 회사의 최근 연도 연 은행 구좌 및 기업 활동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 예상되는 입출금 횟수 및 규모

종종 관련 서류에 대해 거래은행, 공증인, 덴마크 외교부 담당자 혹은 덴마크 은행의 해외 영업소 담당자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 은행이 관련 서류를 증명할 때에는 서류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최근의 내용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증명서에는 은행의 관련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copcap.com/composite-758.htm의 "Banks"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⑤ 회계사 고용

덴마크 정부는 정부가 공인한 공공 회계사를 통해 연차 보고서를 감사 받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의 회계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회계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회계 처리의 문제점을 감소시키고 덴마크 국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실력있는 회계사들에 대한 정보는 www.copcap.com/composite-758.htm 의 "Accountants"에서 검색 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부기나 급여 처리를 대신하는 업체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급여 처리 대행 회사 정보
 - 회사명: PBS Multidata
 - 주소: Lautrupbjerg 10, 2750 Ballerup
 - 전화: +45-4489-2289
 - 팩스: +45-4489-7680
 - 홈페이지: www.dataloen.dk
 - e-mail: dataloeninfi@multidata.dk

다. 주식회사(A/S) 설립 및 운영

1) 설립 절차

주식회사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체에 의해서 설립될 수 있으며, 설립자는 정관을 포함한 설립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설립 계약서에 서명한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등록소(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비는 없다. 회사는 설립 계약서에 서명한 즉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등록 전에는 의무를 지거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정관에는 회사명, 회사의 목적, 회사 설립 지역, 자본금, 이사회 인원수, 회계 연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의 2/3 이상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승인될 수 있다.

2) 자본금

최소 자본금은 DKK500,000이며, 자본금은 회사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두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는 회사의 이름으로 명목상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사가 주식을 인수할 경우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권의 5% 이상 또는 최소 DKK100,000에 해당하면서 총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는 그의 주식 소유 내용을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또한 어떤 주주가 5% 제한을 초과하거나 또는 투표권 및 총 주식의 1/3, 2/3에 달하는 주식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내용을 변동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회사는 5%, 1/3, 2/3의 제한을 초과하는 주주의 리스트를 확보해야 하며, 이 리스트와 Annual Report상의 연간 회계 정보를 포함한 회사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3) 경영

모든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하며, 이사는 주주 총회에서 선임된다. 3년 연속 평균 35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의 경우 종업원이 이사의 절반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이사회는 사장(General Manager)을 선임하며, 사장은 이사회의 멤버가 될 수는 있으나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 이사진의 다수는 회사의 경영진이 아니어야 한다. 이사회와 함께 사장은 회사의 경영진을 구성하고 회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

이사회에 의해서 소집되는 일반적인 연례 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주식 시장에 상장된 대기업은 4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4) 연간 회계

주식회사는 감사를 받은 회계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회계 기록은 최소한 손익 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포함해야 하고 Annual Report도 준비되어야 한다. 회계 기록은 덴마크어로 작성되어야 하나 종종 다른 언어로도 작성될 수 있다. 화폐 단위는 덴마크 크로네 또는 유로로 표시되어야 한다.

연간회계 기록이 주주총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즉시, 그러나 회계 연도 종료 후 4-5개월 이내에 Annual Report와 함께 기업 등록소에 제출되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청산

청산의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2/3 이상의 주주 참석,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청산이 결정되면 주주총회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의 결정은 덴마크 관보를 통해 공고되어야 하며, 모든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라. 유한회사(ApS) 설립 및 운영

유한회사는 법 및 조세 차원에서 볼 때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유한회사 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제한된 유동성으로 소규모 회사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며 설립 절차 등은 주식 회사와 동일하나 주식회사와 크게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납입 자본금이 최소 DKK 125,000
- 자본금이 일인 또는 그 이상의 설립자에 의해서 납입
- 주식이 주식 소유자의 이름으로 발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주식 소유자는 주식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또는 주식 소유자가 되지 않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회사는 주주 명단을 유지해야 하며, 자본금이 DKK500,000이상인 회사는 주주 명단을 공개해야 함.
- 한 명의 주주에 의해 모든 주식이 소유되었다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 주식 소유자의 신분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유한회사는 회사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유한회사는 반드시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General Manager) 선임은 안해도 됨. 경영진은 한 명의 이사, 한 명의 Director, 한 명의 General Manager로 구성할 수 있음.
- 주주의 권한을 축소하는 정관의 변경은 모든 주주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함.
- 자본금의 40% 이상을 잠식할 경우 회사는 자본금의 재 출자 받거나 또는 해산해야 함.
- 유한회사의 회사의 청산 절차가 주식 회사에 비해 매우 간단함.

마. 지사 설립 및 운영

1) 설립 절차

모국에 등록된 외국 법인 혹은 회사는 덴마크 산업부의 허가 하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비 EU회원국의 법인이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소재한 국가에 동일 분야의 덴마크 기업도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사 명에는 모회사 명 및 출신 국가 명과 더불어 Filial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자본 구조

외국 업체의 덴마크 지사는 자본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3) 경영

최소한 한 명 혹은 그 이상을 지사의 Manager로 선임하여 등록해야 한다.

4) 지사 폐쇄

지사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장기간 지사장이 공석일 경우, 지사는 폐쇄될 수 있다. 회사 등록소에 등록이 취소되면 지사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지사장은 소득세, 관세 그리고 기타 공공 기관에 대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5) 장부 및 회계 기록

지사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모회사의 회계 감사를 받은 연차 회계 보고서의 공증된 사본을 회사 등록소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지사의 연간 회계 기록은 납세 신고서와 같이 제출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6) 법정 감사

세법 및 회사법에서는 지사에 대한 회계기록을 감사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지사 설립에 허가가 요구될 경우 산업부는 회계 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및 운영

외국 회사가 등록 없이 Representative Office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립된 사무소는 분리된 법인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완전히 외국 회사를 대신해서 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무소의 의무 및 채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국 회사가 책임을 진다.

사. 공장 설립 절차

덴마크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회사(A/S) 또는 유한회사(ApS)를 설립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인수한 후 개보수하는 형태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 두 가지의 승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예외이다. 승인을 받는 것은 법에 정해진 내용만 충족시키면 크게 어렵지 않다.

첫 번째는 공장 설립 승인이다. 공장 설립 승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Technical Division 이 해주는데,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Zoning Law 에 따라 검토한 후 승인을 해준다. 즉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주거 지역인지 공장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처리 기간은 통상 6-8 주가 걸리나 대도시 지역은 이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 규모가 적은 지역은 덜 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된 승인이다. 이것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는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폐수, 냄새 등을 점검한 후 승인을 해 준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폐수, 냄새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지를 점검한 후 승인을 해 준다.

아. 투자 관련 정부 기관

1) 회사 등록기관

- 기관명: Erhvervs og Selskabsstyrelsen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 주소: Kampmannsgade 1 DK-1780 Copenhagen K
 - 전화: (+45) 3330 7700, 팩스: (+45) 3330 7799
 - e-메일: ebst@ebst.dk
 - Web : www.ebst.dk

2) 투자 지원 정부 기관

- 기관명: Invest In Denmark
 - 주소: Slotsholmsgade 10-12, DK-1216 Copenhagen K.
 - 전화: (+45) 3546 6000, 팩스: (+45) 3546 6001
 - E-mail: Info@investindk.dk
 - Web : www.investindk.dk

3) 공장 설립 승인 기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접촉해야 하는데 코펜하겐의 경우 아래와 같다.

- 부서명: Byggeri & Bolig 내의 Byggesagsafdelingen
 - 주소: Postboks 432, Ottiliavej 1, 4. sal, DK-2500 Valby
 - 전화: (+45) 3366-5200, 팩스: (+45) 3366-5200
 - E-mail: byggesagsafd@tmf.kk.dk

4) 공장 설립을 위한 환경 관련 승인 기관

공장을 설립 시 환경 관련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접촉해야 하는데 코펜하겐의 경우 아래와 같다.

- 부서명: Environmental Division
 - 주소: Postboks 432, Ottiliavej 1, 4. sal, DK-2500 Valby
 - 전화: (+45) 4322-2849, 팩스: (+45) 4322-2866
 - E-mail: aaslyn@tf.kbhamt.dk

자. 투자 관련 서비스 기관

1) 회계법인

- Price Water house Coopers
 - 주소: Strandvejen 44, DK 2900, Hellerup
 - 전화: (+45) 39453945
 - 팩스: (+45) 39453987
 - e-메일: dk-webmaster@pwc.com
 - Web: <http://www.pwc.com>

- KPMG
 - 주소: Borups Alle 177, Postboks 250, 2000 Frederiksberg
 - 전화: (+45) 38183000
 - 팩스: (+45) 72293030
 - e-메일: kpmg@kpmg.dk
 - Web: <http://www.kpmg.dk>

- BDO Scanrevision
 - 주소: Kristinebjerg 3, 2100 Copenhagen East
 - 전화: (+45) 39155200
 - 팩스: (+45) 39155201
 - e-메일: koebenhavn@bdo.dk
 - Web: <http://www.bdo.dk>

2) 법무법인

- Jonas Bruun
 - 주소: Bredgade 38, 1260 Copenhagen K
 - 전화: (+45) 3347 8800
 - 팩스: (+45) 3347 8888
 - e-메일: jb@jblaw.dk
 - Web : <http://www.jblaw.dk>

- Kromann Reumert
 - 주소: Sundkrogsgade 5, 2100 Copenhagen Ø
 - 전화: (+45) 70121211
 - 팩스: (+45) 70121311
 - e-메일: cph@kromannreumert.com
 - Web : <http://www.kromannreumert.com>

- Niels Ahlmark(Member of the Law Firm Ret & Raad)
 - 주소: Vester Voldgade 90, 1552 Copenhagen V
 - 전화: (+45) 3315 1563
 - 팩스: (+45) 3313 0707
 - e-메일: koebenhavn@ret-raad.dk
 - Web : <http://www.ret-raad.dk>

6.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 여건

덴마크는 대부분 공업 용지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공장부지 결정은 지자체가 하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동 지역 내 공장 부지는 업체 유치를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부지 확보의 용이성, 환경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공장들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코펜하겐 외곽 지역인 Glostrup, Bronby, Ballerup 지역이 공장 설립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 생산 공장 및 판매 사무소도 이곳에 설립되어 있다.

덴마크의 대표적 기업들은 대부분 각 지방의 소도시에서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기업이 설립될 당시부터 소재지에서 커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Danfoss사가 본토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Grunfos사는 중북부 지방, Lego는 중부 지방, Vestas 사는 중서부 지방의 소도시에서 위치하고 있다.

덴마크 본토의 북부 지방인 Aalborg지역에는 IT업체가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조선 산업이 발달해 있던 지역이었으나 조선업이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지방 정부에서는 대체 산업으로 IT산업을 육성기로 하고 대학 등의 관련 학과 증설, 직업 학교 과정 확대로 인력을 조달하는 한편 금융 지원을 통해 관련 업계 유치한 결과 현재는 덴마크뿐 아니라 북유럽에서 손꼽히는 IT 산업 지역으로 발달했다.

2000년 코펜하겐-말뫼를 잇는 교량의 완공됨에 따라 동 지역(Oeresund)의 경제권이 단일화되고 있으며, 특히IT 및 생명공학 관련 산업이 집중 발전되고 있어 이를 Medicon Valley로 부르기도 한다. 상기 이외에도 Herning 및 Ikast시를 포괄하는 지역의 섬유 디자인 산업 클러스터, Horsens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업 및 농업용 철물산업 클러스터, Esbjerg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여행 산업 클러스터, Funen 지역의 묘목 산업 클러스터, 유틀란드 반도 동부를 중심으로 한 운송 산업 클러스터 등이 유명하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및 정부의 산업 정책과 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특정 산업에 특화, 발전한 지역들이다.

한편 Invest in Denmark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의 목적에 맞는 공장 부지를 알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Invest in Denmark를 접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vest in Denmark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Invest In Denmark
- 주소: Slotsholmgade 10-12, DK-1216 Copenhagen K.
- 전화: (+45) 3546 6000, 팩스: (+45) 3546 6001
- E-mail: Info@investindk.dk
- Web : www.investindk.dk

나. 산업 단지

덴마크에는 특별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 단지가 없다.

7. 노무관리

가. 인력

덴마크의 노동 인구는 약 285만 명이며 그 중 151만 명이 남성이고 134만 명이 여성이다. 대체적으로 노동 인력의 질이 높고, 안정되어 있다. 임금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편인데, 연간 물가 상승률이 2%이면, 임금 상승률은 3-4% 수준 정도이다.

국립 학교를 비롯 고등학교, 대학교는 무료이고 산업 근로자는 전문인 양성 과정 혹은 기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여러 분야에 숙련된 노동력을 찾을 수 있으며 효율성과 훈련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는 노동력의 수급 (ARBEJDSFORMIDLINGEN)을 위해 주어진 지역의 일자리를 구하는 개인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등 노동력의 유동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호황으로 건설 등의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동구 등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노사 관계

피고용인-고용주와의 관계는 월급 고용인에 대한 법과 덴마크 고용주 연합(DA)과 덴마크 노동조합연합(LO) 간에 1973년 10월 31일 체결된 주 협정문 및 그 후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노사 합의 내용을 적용 받는다. 상기 법과 합의 내용은 피고용인의 고용은 물론 법정 최소 휴가일, 해고 통보, 초과 근로 수당, 여성 및 남성의 출산 휴가 등 근로 조건과 관련한 피고용인의 보호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

다. 노동조합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기술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회원이다. 따라서 일정 분야의 기업 피고용인들은 여러 개의 노동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회원 가입은 의무는 아니지만 회원들이 비회원과의 근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간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합의하여 특정 조합의 회원만을 고용하기도 한다. 노사의 총체적 합의는 그 회사가 속한 고용주 단체와 관계되는 노동조합 간에 2년, 3년, 4년 마다 이루어지며, 여기서 임금, 근로 조건 및 기타 노사 관계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덴마크 고용주 연합과 덴마크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공식 중재자를 두기도 한다.

라. 근로자 평의회

고용주 연합과 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모든 산업체는 35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 정보 공유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 유지와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평의회를 두어야 한다.

마. 피고용인의 이사 선출권

지난 3년간 평균 35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나 기업의 피고용인은 그들 중 최소 2명과 대리인 2명을 이사회에 이사로 선출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에서의 피고용인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절반 이상의 피고용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용인이 이사회에 이사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그 회사에 최소한 일 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바. 피고용자 Stock Option Scheme

산업 근로자의 기업 공동 소유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The Tax Assessment Act”는 Stock Option Scheme이 덴마크 조세 당국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라면 피고용인이 획득한 주식에 대해 조세 감면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 근로 조건

1) 임금

덴마크에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 임금 제도는 없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 의해 최저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니다.

2007년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DKK 33,677이며, 간부직 평균 임금은 DKK 51,511이다.

부문별 일반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

(단위: DKK)

부문별	일반 근로자	간부직	부문별 전 직급 평균
농수산업	45,128	66,205	48,081
제조업	33,728	53,294	37,074
도소매, 호텔, 식당	29,849	45,307	31,816
운수, 창고 및 통신	31,270	50,544	33,275
금융 중개업	38,337	61,053	41,226
전 업종 평균 급여	33,677	51,511	36,098

주: 2007년 덴마크 통계청 발표 자료(2008년 통계 미발표)

2) 수당

많은 회사들이 은행, 보험 회사와 협력하거나 독자적인 연금 자금을 마련하여 부가적인 연금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위하여 적합한 식사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관계로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은 식사와 음료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는 매점을 설치해 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간혹 주거 시설도 제공된다. 회사의 고위 간부들에게는 회사 차량이 지급되기도 한다.

덴마크에서는 연금을 제외하고는 높은 특별 수당을 주는 것은 그리 널리 행해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특별 수당은 피고용인에게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3) 근무 시간

임금 근로자의 경우 단체 계약에 의해 주당 5일, 37시간 근무가 규정되어 있다. 야간 근로자의 경우 매 38시간 근무 시 2시간의 별도 유급휴가 권리가 부여된다.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 고용인 연합(EMPLOYEE'S ASSOCIATION)의 회원일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의 계산은 첫 3시간은 50%를 지급하고 그 이후는 100%를 지급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에는 100% 지급한다.

4) 유급 휴가 및 공휴일

모든 피고용인들은 공휴일도 임금이 지불되며, 휴가 및 휴가비 지급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용인은 법에 의해 연간 5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식으로 고용된 월급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도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는다. 월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총 급여의 12.5%가 휴가비로 주어진다.

병가에 대해서는 월급 근로자인 경우 정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월급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병가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를 가질 수 있는데 출산 전 어머니가 4주, 출산 후 어머니가 14주, 아버지가 2주를 가질 수 있고, 32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 14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50%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에 산후 46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5) 해고

고용주가 월급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칙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 6개월 이내 근무 직원: 해고 1개월 전 통보
- 6개월-3년 근무 직원: 해고 3개월 전 통보
- 3년-6년 근무 직원: 해고 4개월 전 통보
- 6년-9년 근무 직원: 해고 5개월 전 통보
- 9년 이상 근무 직원: 해고 6개월 전 통보

월급 근로자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부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사직은 통보한 당월로부터 1개월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인턴이나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월급 근로자가 12, 15, 18년 혹은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면 부수적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분의 추가 월급을 보상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1, 2, 3년 혹은 그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인 및 18세의 미만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있으면 1개월, 2개월, 3개월 분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임금 근로자 해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노동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임금 근로자는 9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21일의 사전 통보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21일의 사전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용인의 사직 통보는 이에 반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6) 기회 균등

법령에 의해 인종, 국적, 종교 혹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봉급, 임금 혹은 혜택의 수준이 성별이나 앞서 언급한 기준에 의해서 고용인에게 달리 주어지지 않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이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7) 보건 및 안전

모든 기업은 근로보건 및 안전법(ARBEJDSMILJØLOVEN)에 근거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정, 노사 합의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안전 요원을 지명하거나 최소한 1개의 안전 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인지도 높은 보험회사에 피고용인의 근무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와 비위생적인 근로 조건 혹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영구 부상 및 건강 악화를 보상해주는 보상 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8) 교육 훈련

현지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을 위하여 기본 훈련 혹은 고등 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훈련 과정과 수련인의 시험 관리는 정부가 보조하는 교육 기관이나 현지 시당국이 맡고 있다. 아울러 고용주는 여러 과정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체 훈련 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 사회 보장

1) 사회보장 제도

덴마크는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다.

- 공공 기금으로 총당하는 연금, 의료 및 아동 복지
- 공공 기금으로 총당하는 실업자 및 장애인 복지
- 피고용인의 기부금으로 총당하는 추가 연금
- 산업 재해 보험
- 공공 기금으로 총당하는 피고용인 보장 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s)

2) 보장

피고용인 보장 기금에서 제공하는 추가 연금 혜택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주, 피고용인을 막론하고 덴마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까지 적용된다.

3) 기부

사회보장기금의 기부는 주로 정부 출자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사회보장 비용도 직접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출자되지는 않는다.

4) 혜택

□ 연금

모든 덴마크 시민은 다른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외국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덴마크 체류 기간 등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금은 65세가 된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1999년 6월 1일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에게는

67세가 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2008년에는 연간 DKK 61,152가 연금으로 지급됐으며, 매년 이 금액은 임금 상승률을 토대로 조정된다. 만약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개인 1명에게는 연간 DKK 63,468이 추가로 지급되며, 부부에게는 DKK 29,640이 추가로 지급된다. ('09년 현재)

모든 피고용인과 근로자(외국인 포함)는 67세에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99년 6월 1일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은 65세가 된 다음 달부터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연금 이외에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연금 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연금은 개인이 연금 기금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시기는 65세 부터이며, 1999년 6월 1일 이전에 60세가 된 사람은 67세부터이다. 이 연금은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용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국가 공인 실업 기금의 회원 중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기 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60세에서 64세 사이에서 조기 퇴직이 가능하며, 퇴직하는 회원들에게는 65세 가 되어서 퇴직한 사람이 받는 연금 수령액 보다 약간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액은 조기 퇴직 제도에 규정되어 있다.

□ 질병 및 의료 비용

1971년의 봉급 근로자법에 따르면,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결근할 경우에도 유급으로 하고 있다. 만약 피고용인이 2주일 이상 질병으로 결근하였음에도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2주 이상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다. 출산 휴가 시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된다.

의료 및 치과 비용은 개인의 의사 및 치과의 선택 제한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환불되거나 50%만 환불되며 입원은 수술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무료이다.

□ 아동 복지

2008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연간 DKK 14,156을 받을 수 있으며, 3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가족은 연간 DKK 12,792을 받을 수 있고, 7세부터 17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은 DKK 10,064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이 금액은 연세로서 소득과 별개로 구분되며 매 분기마다 미리 부모에게 지급된다.

□ 실업 수당

실업 수당은 해당 사람이 국가 공인 실업 기금의 회원인지 아닌지의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국가 공인 실업 기금의 회원일 경우 원래 봉급의 90%, 2008년의 경우 주당 최고 DKK 3,515의 실업 수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으나 회원도 아니며 기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개인은 거주하는 시청에서 생활 보조비가 주어진다.

□ 피고용인 보장 기금(Employees Guarantee Fund)

피고용인 보장 기금의 목적은 고용자가 파산할 시 지불되지 못한 보수에 대한 피고용인의 피해를 막는데 있으나 기금은 각 피고용인에게 소득세 후 최고 DKK 110,000을 지불한다.

5) 외국인에 대한 사회 보장

CPR CARD(현지 주거자 신분증)를 발급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현지인과 거의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관은 CPR CARD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장 수혜 대상이 아니다.

8. 조세제도

가. 세제 개황

세금의 종류를 보면 첫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이산화 탄소세, 개인의 경우 개인 소득세가 있고,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자본 소득세가 있다. 두 번째로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VAT), 자동차 등록세, 관세 및 여러 재화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지세,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또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개인에 대한 재산세(법인은 제외함)와 부동산 보유세가 있다. 자본세(주식 양도세, 부유세 등), 지급 급여세 등은 없다.

국세의 총당은 간접세가 39%를 차지하고 약 61%가 직접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금은 국회에서 제정된 세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며, 세금은 국가, 주 및 시 단위로 부과 가능하다. 비록 각기 다른 정부 기관이 세금을 부과하기는 하지만 세금을 신고, 추정 및 수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기업 조세

1) 법인세

법인세는 단일 세율로 25%이다. 법인세는 면세 항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덴마크에 주재하는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과세되지만, 비 거주 기업은 덴마크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모든 덴마크 기업을 포함한 과세 가능한 영구 설립 기관(예: 지사)을 둔 비 거주 외국 기업은 매 세무 기간마다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회계 연도가 4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인 법인은 늦어도 이듬해 4월30일까지 납세신고를 끝내야 하고, 회계 연도가 1월1일과 3월31일 사이에 끝나는 법인은 당해 5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통 납세 신고서 제출은 6월30일까지 연장 가능하고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지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또한 납세 신고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 신고서를 경영진의 결제를 받고 제출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금의 부과는 기업이 제출한 납세 신고서를 근거로 현지 세무 당국이 실시하며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전에 서면 혹은 구두로 세금 액수의 변동을 가져올 사유를 표시할 수 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알린다.

납세자가 올바르게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세무 당국은 추정치로 부과한다. 납세 신고서의 정보가 미흡하여 세무 당국이 만족하지 않으면 추정치 혹은 임의의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다.

만약 법인이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할 시에는 세금 부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시 세무위원회(Municipal Tax Board)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사건을 재심사하여 새로이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결정에 법인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면 결정이 내려지고 난 일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Municipal Tax Council)로 항소할 수 있다.

지자체 세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다시 8주 이내에 국립 세금 재판소(Landsskatteretten / National Tax Tribunal)로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직접 출두하거나 회계사 혹은 변호사를 대신 선임할 수 있다. 그 이후의 항소 절차는 세무 당국이나 납세자의 항소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이어지게 된다.

법원 내에서의 항소는 이따금 회계사들의 지원을 받고 변호사들에 의해 처리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무 연도 5년이 지나기 전에 부과 금액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 당국은 재심사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여길 시에 수용할 수 있다. 만약 세무 당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법원으로 항소할 수 있다.

법인세액은 별개의 고지서로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납기일은 세무 연도 이듬해 11월 1일 까지이며, 납부가 11월 20일을 지나면 안 된다.

2) 이산화탄소세

이산화탄소세는 덴마크 영토 내에서 이산화탄소의 탐사 및 채굴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산화탄소세는 이산화탄소의 탐사 및 채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가진 자에게 부과되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이산화탄소세가 부과된다.

이산화탄소세는 2004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채굴된 이산화탄소의 판매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70%가 부과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 이후에는 52%로 하향 조정되었다.

3) 자본소득세

3년 이상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본 소득세가 면제되나 3년 미만 소유한 주식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자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DKK 46,700까지는 28%, DKK 46,700~102,600까지는 43%, 그 이상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인 주식 소유자는 덴마크 회사의 주식에 대해 덴마크의 자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4) 간접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세, 자동차 등록세 등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25%이며, 관세는 덴마크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EU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물품세는 술, 음료, 담배, 차, 커피, 초콜릿, 물, 자동차 연료, 난방용 석유, 가스, 석탄, 전기 등에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80%로 매우 높다.

다.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

외국 기업 및 자사의 경우도 법인세, 이산화탄소세, 자본소득세 등은 동일하게 납부해야 하며, 간접세도 마찬가지이다. 이 외에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 시 원천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외국 법인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28%의 원천징수세나 조세 협정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 협정 체결국이 아닌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로열티에 대해서는 28%의 로열티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영구 설립 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덴마크 내의 산업 및 공업 이윤은 과세된다.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 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 설립 기관으로 간주된다. 연락사무소 혹은 대표 사무소는 직원이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면세로 활동할 수 있다.

비거주 회사에 대한 이중 과세 협정에 의해서 덴마크 내에서의 납세 의무 정도를 규정하며, 만약 협정이 없다면 OECD모델 협정과 유사한 조항에 의해서 규정된다. 협정에 의해 국내 영구 설립 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 및 상업 이윤에 대한 과세가 제한된다. 또한 비거주 회사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되지만 영구 설립 기관은 거주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대리점이 없는 덴마크 소비자를 위한 재화의 수입은 영구 설립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덴마크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비관련 대리점(Unrelated agent) 및 독점 대리점(Sole agent)이 행하는 상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의 판매를 담당하는 영구 설립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이 판매 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주어지면 영구 설립 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재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판매 활동은 영구 설립 기관으로 간주될 요인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결정이 덴마크에서 이루어졌는지 외국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즉 판매 계약이 덴마크에서 체결되면 영구 설립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의 조항에 따라 지사의 이윤중 법인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지사에 의해 직간접으로 발생된 모든 거래 소득과 지사를 위한 자산 혹은 소유권으로 발생한 소득
- 지사와 관련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50%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지사의 소득과 손실을 법인세를 위해 조정하는 방법은 거주자 회사와 같으나, 소득을 수익 공제 항목으로 손금 처리 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내에서 지사를 통한 무역만을 위한 용도이어야 한다.
- 또한 외부 부채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본사로부터 빌린 부채 대한 이자 지급 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재화의 구입, 광고 및 기타 보조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나 고정된 장소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지사의 본사로의 이윤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나 기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덴마크 회사로부터 외국인 주주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또한 28%의 원천징수세 내지는 조세 협정에 의한 세율로 과세된다. 주주총회에서 배분된 배당금뿐만 아니라 비밀 배당금 및 파산 절차를 밟지 않는 회사로부터의 주식, 자본의 감소로 인한 지분 그리고 파산 절차를 밟는 회사의 역년 이전의 배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조세 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원천 징수된 금액과 조세 협정에 의한 세율 차이의 환급을 위해서는 세무 당국으로 서면 제출이 필요하며, 세무 당국은 외국인 주주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 원천징수세는 확정 세액으로서 다른 원천의 손실로 인해 감소될 수 없다. 외국인 주주들도 이중 과세 방지 조약 체결국에 해당하면 거주자 회사의 공개된 배당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주들은 덴마크 주식의 판매 혹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득에 보통 덴마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회사간 주식 판매는 덴마크 세무 관계상 배당금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다.

라. 개인 조세

1) 소득세

덴마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덴마크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를 납부한다.

전 국민은 소득액의 8%를 실업 기금으로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 소득액에 따라 추가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2008년도의 경우 총 소득에서 기본 감면액(DKK41,000)과 기타 감면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며, 총 세율이 59%를 초과할 수 없다.

- 국세(State Tax Rates)
 - 기초 세율(0 - DKK279,800): 5.48%
 - 중간 세율(DKK279,800 - DKK335,800): 6%
 - 고세율(DKK335,800 이상): 15%
 - 지방세(Local Tax Rates) 평균: 32%

이 밖에 종교세가 1% 인데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납부하고 싶은 사람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실업 기금 8%, 국세와 지방세 59%, 종교세 1% 등 총 6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파견된 고액 연봉자나 과학자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3년에 한해 25%의 특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는 DKK 55,400를 초과하는 자산(2008년 경우)에 대해 부과되는데, 세율은 상속자가 자식, 부모 등 직계일 경우 15%, 상속자가 형제, 자매, 친척 등 기타 관계인 경우 15% 외에 추가로 25%(첫 번째 15% 감면 후의 금액에 대해)를 납부해야 하는데 총 세율이 36.25%를 초과할 수 없다.

증여세는 부부 간의 경우 금액의 다과와 상관 없이 면제되며, 직계 존속의 경우 DKK 56,800을 초과하는 금액(2008년 경우)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되며, 기타 관계인 경우 36.25%의 세금이 부과된다.

3) 재산세

DKK 3,040,000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1%, 이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3%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외환 규제

일반적으로 덴마크 내에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한 외환 규제는 없다. 다만 투자자의 거주지 국가가 덴마크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제한할 수는 있다.

나. 외국 자본 및 기술 등록

통계 및 통제 목적을 위해 EUR 50,000이 넘는 국제 송금은 덴마크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것 외에 외국 자본에 대해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 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보고할 필요가 없다.

다. 현금 구좌

모든 덴마크 내 거주인은 덴마크 혹은 해외에 현금 구좌를 가질 수 있으나 해외에 은행 구좌나 증권권을 보유하는 거주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은행 명, 구좌 혹은 예금 종류 등을 덴마크 내 거주자임을 밝히는 증명서와 더불어 신고해야 하며 다음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덴마크 국세청에 예금 혹은 구좌 조사권 위임
- 해외의 은행 기관이 덴마크 국세청으로 이자율 및 잔고에 대한 연간 보고 등을 승인하는 신고서

라. 자본 및 소득의 송금

법인 혹은 지사에 투자된 자본의 본국 송금에 대한 외환 규제는 없으며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 및 판매, 이자, 로열티, 배당금 및 기술 자문료를 포함하여, 소득의 본국 송금에 대한 규제 또한 없다.

마. 자금 조달 방법

덴마크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다른 선진국처럼 매우 자유로우며, 대출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이 없을 경우 모기업 또는 제2자의 지급 보증에 의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 규모

덴마크의 연간 수입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100억 달러 수준으로, 산업 구조상 일반 소비재 및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경기 호황으로 수입 시장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우리의 주종 수출 품목인 일반 소비재 시장도 확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덴마크는 비교 열위에 있는 상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고가품 생산에 주력하여 화학, 의약, 측정 장비, 디자인, 가구, 오디오, 건설 기술, 발효 기술, 시멘트 공장 설비, 조립식 완구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시장 특성

첫째로 소비 패턴이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덴마크는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6만 2,100달러 대의 고소득 국가인 관계로 의류, 전기, 전자제품, 신변용품 등은 고급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율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생활 용품 등은 저가품을 선호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급품 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이다. 덴마크는 인구 540만 명의 작은 나라이며, 일부 제품은 덴마크에서 수입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 국가와 독일 등 중부 유럽에도 공급하기도 하지만 전체 수입량 규모는 크지 않다.

세 번째로는 상거래 형태가 매우 보수적인 시장이다. 처음 거래를 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간이 걸리나 일단 거래 관계를 형성하면 쉽게 거래선을 바꾸려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네 번째로 일반 소비 제품의 경우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가전 제품, 생활용품, 안경 등 일반 소비재는 소수의 대형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는 시장이다. 덴마크는 깨끗한 국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다. 덴마크인들은 환경 문제를 하나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방안이 유익하다고 판명되면 당장 그 방안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당연히 환경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제품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여섯 번째로는 비교적 의사 결정 속도가 느리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한번 수입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테스트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된다.

다. 한국 상품 점유율 및 인지도

덴마크 전체 수입 규모는 2008년 덴마크 수입 통계 기준으로 DKK 5,595억(1,100억 달러) 규모인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DKK 71억(13억 9,000만 달러) 정도로서 덴마크 수입 시장 점유율이 약1.26% 정도이다.

한국 상품 중에서 수입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자동차와 전기, 전자 품목으로 자동차가 10% 내외, 핸드폰이 약 13%-14%, 컴퓨터 모니터 및 평면 TV가 6%-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일부 특수한 품목 경우는 자동차나 전기, 전자 제품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은 아직도 수입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다.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품질 면에서 중국 등 개도국 제품에 비해 우수하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제품에 비해 떨어지며, 가격은 개도국 제품보다 조금 비싸나 선진국 제품보다는 훨씬 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산 핸드폰, 평면 TV 등이 최고의 제품 반열에 올라서면서 한국 제품 전체의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라. 유통 구조

덴마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유통 구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대형 유통 체인이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도매상의 경우 대부분 본인들이 직접 수입을 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 밖에는 도매상이 수입을 하여 소매상에게 공급하고, 소매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3단계 구조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독점 수입상이 자동차를 수입하여 딜러에게 공급하고 딜러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구조이다.

마. 수출 유망 품목

1) 가정용 전자

덴마크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개인 소비가 위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진입 여지가 많은 고기능의 전자 제품은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평판이 좋기 때문에 수출이 유망하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평면 TV, 디지털 카메라, MP3,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을 들 수 있다.

2) 보안 제품

9.11테러, 런던 폭발물 사건에 이어 모하메드 만평 사건 등 덴마크와 중동 국가 간 긴장이고조됨에 따라 보안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DVR, CCTV등 보안 관련 제품의 수출이 유망하다.

3) 자동차 부품

신차 판매가 2004년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국산 차 시장 점유율도 매년 8-10%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산 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지 7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부품 교체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타이어를 비롯한 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덴마크 대부분 수입상들이 순정 부품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철강제품

2007년까지 호황을 보였던 건설 경기가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를 맞고 있지만 중국산 등 저가 개도국 철강 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산 제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5) TV 셋톱박스

2006년 3월부터 DR1, DR2, TV2가 Digital Terrestrial Broadcasting을 실시함에 따라 이 방송 수신을 위한 셋톱박스(DVB-T) 수요가 새로 나타났으며, LCD 및 플라즈마 TV 등 평면 TV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로 TV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보다 선명한 화면을 즐기기 위해 디지털 방송 시청을 위한 TV 셋톱박스를 구입하고 있고, 2009년까지 TV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모두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TV 셋톱박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셋톱박스는 Viaccess encryption이 지원되어야 한다.

2. 물가정보

(1 US\$ = 5.19 DKK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DKK)
식품류	쌀 1kg	11
	계란 12개	30
	쇠고기 등심 1kg	125
	돼지고기 등심 1kg	100
	우유 500ml	4
	식용유 1L	20
	생수 1L	6
	맥주 (하이네켄 330ml, 6팩)	45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33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50
	김치찌개 1인분	15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36,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35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00,000
	무연휘발유 1L	10
	자동차 등록비	18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 운전경력10년, 대인/대물커버, 1년)	6,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5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21
	시내버스 기본요금	21
	택시 기본요금	24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75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33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1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244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16,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84,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89,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120,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75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1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초임 월급여)	27,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25,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4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37
	출산휴가일수	52주
	연간 국경일수	30
	주5일 근무 여부	유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150

3.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를 이용하는 방법

덴마크에는 각 제품 또는 산업별 협회가 잘 발달되어 있어 협회를 통해 관련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덴마크 협회에 대한 연락 정보는 [www. branchelink.dk](http://www.branchelink.dk) 에 소개되어 있는데 건설(Byggeri), 에너지 및 환경(Energi og miljø), 금융 및 보험(Finans og forsikring), 소비재(Forbruger produkter), 식품(Fødevarer), 산업재(Industriprodukter), 농수산물(Jordbrug og fiskeri), 문화 및 미디어(Kultur og medier), 공공재(Offentlig), 서비스 및 IT(Service og IT), 건강(Sundhed), 운송(Transport) 등으로 산업을 분류하여 각 산업별 제품에 대한 협회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나.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덴마크 바이어들은 독일 등 인근 유럽 국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많이 참관을 하는 편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참가 기업의 디렉터리를 통해 적합한 거래 업체를 찾는 것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유명한 전시회로는 코펜하겐 국제 패션전(CIFF), 허닝 산업전 (HI), 허닝 농업박람회(Agromek) 등이 있으며 덴마크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는 KOTRA 코펜하겐 KBC 홈페이지 (www.kotra.or.kr/copenhagen) 전시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한 덴마크 최대의 전시장인 Bella Center 홈페이지(www.bellacenter.dk) 내 전시 캘린더를 통해서도 주요 전시회 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다.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인터넷을 통해 덴마크 기업을 발굴하고 거래 알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 Danex Trade Leads Bulletin(www.danex-exm.dk/bboard.htm): 전세계 주요 거래 알선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으며 오피 등록 서비스를 제공
- Danish Exporters(www.danishexporters.dk): 덴마크의 수출업체 리스트를 제공

이외에도 유럽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European Business Directory (www.europages.com)에는 약 30여 개 유럽 국가들의 업체 정보와 각종 오피 정보가 제공되므로 참고해 볼 만하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비즈니스 언어

덴마크인의 76%가 영어를 구사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영어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언어로써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복장

덴마크 사람들은 복장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복장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덴마크 사람들도 정장을 차려 입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는 정장 차림이 좋으며, 일반적인 상담 때에도 가급적 정장 차림이 좋으나 불가피할 경우는 아주 예의에 어긋나지 않은 차림이면 된다.

3) 약속

덴마크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덴마크 기업들은 가능한 인력을 절감하려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각각이 매우 바쁘며, 특히 회사 고위층의 경우 더욱 바쁘다. 따라서 상담 약속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전에 접촉해야 한다. 일단 상담 약속이 잡히면 상담 약속을 어긴 경우는 많지 않으나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2~3일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덴마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상대방도 상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상담이 잡히면 지켜야 하며, 불가피하게 상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상담 시간은 덴마크 사람들의 근무 시간이 오전 8:30에서 4:00사이이기 때문에 가급적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반 이전에 상담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덴마크의 특성상 육아 및 가정 문제를 부부가 서로 분담하여 돕기 때문이다.

4) 선물

덴마크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받는데 익숙해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 집에 초대 받았을 경우나 또는 기념식 등에 초청 받았을 경우는 반드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에는 가족, 친구 사이에 선물을 준비하여 주고 받는다. 따라서 상담 때에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생일, 크리스마스 등에 축하 카드나 조그만 선물을 주는 것도 비즈니스에 매우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념일을 잊지 않고 챙겨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물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선물의 종류로는 한국 전통 수공예품 등 한국적인 것이 좋다.

5) 인사

인사는 보통 서양식으로 하면 된다. 밝게 웃으며, 인사말과 함께 악수를 하는 방식이다. 그 외 아주 친한 경우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포옹과 함께 볼을 부딪치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6) 식사

덴마크 사람들은 점심 시간이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점심 보다는 저녁 식사를 초대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점심 식사는 보통 간단하게 하며, 저녁 식사는 격식을 갖추어서 한다. 따라서 식사 초대는 저녁식사로 하는 것이 좋다. 식당은 양식당이 무난하나 한국 음식도 나쁘지 않다. 덴마크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는 불고기, 갈비 등 소고기나 돼지 고기 구이를 좋아한다. 김치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으나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권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 문화적 금기 사항

특별히 문화적 금기 사항은 없으나 덴마크 사람들의 경우 여왕과 왕실을 존경하며, 왕실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왕이나 왕실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 삼가야 한다.

다. 바이어와의 연락

일반적으로 바이어와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일반 우편, e-mail,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팩스의 경우는 종종 담당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전화는 초기에 담당자를 찾을 때나 연락이 한두 번 오고 간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는 업체로 부터의 전화 연락은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한국어가 들어 가거나 스팸 메일로 취급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ctive X나 별도의 다운로드를 요하는 메일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hotmail 등의 메일 계정보다는 회사 메일 계정을 통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전문적으로 보인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연락을 취하는 목적
-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영문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소개나 스팸성 메일 보다는 해당 업체에 맞춤형 내용이 필요
- 한국 업체 담당자의 주소, 전화, 팩스 등 연락처

라. 상담 시 유의 사항

상담에 들어가서 바로 비즈니스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날씨, 덴마크에 대한 인상 등 비즈니스 이외의 가벼운 화제로 분위기를 환기시킨 후 상담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가 상담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덴마크의 인구가 적다고 하여 작은 시장으로 보아서 안되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보아야 한다. 상당수 바이어들은 스칸디나비아 전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덴마크를 통해 스칸디나비아 시장을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바이어와의 연락 시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일반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가격 수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데 덴마크 바이어들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을 위한 가격 폭은 10%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제 방법은 신축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초기 거래 때에는 바이어에 대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L/C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뢰가 구축되면 바이어의 입장에서 거래 조건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L/C 개설에는 은행 수수료가 많이 들고, 목돈이 잠기기 때문에 L/C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덴마크 바이어들은 초기에 소량 주문을 통해 시장성 테스트, 품질 및 납기 기한 이행 여부 등 기본 요소들을 점검하고 신뢰가 쌓일 경우 거래 규모를 늘려가기 때문에 초기의 소량 주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초기 접촉 → 테스트 및 거래에 대한 협상 단계 → 테스트를 위한 소량 주문 → 신뢰 구축 단계 → 대량 주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초기 접촉부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상담 중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아주 대기업이 아니면 대부분 회사의 사장도 운전을 직접하며, 커피도 직접 대접한다. 한 한국업체가 그 동안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교신하다 덴마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덴마크 업체 측에서 공항 영접을 나왔었다. 한국업체는 공항 영접 나온 사람이 직위가 낮은 줄 알고 함부로 하였는데 나중에 상담장에서 보니 공항 영접 나온 사람이 사장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마.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덴마크의 경우 제품이 복잡하지 않고, 물량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는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 조건만 합의되면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점 판매 지역과 관련하여 덴마크 바이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 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생각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전체의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 특별한 바이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거래를 일단 한번 해보고 독점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점권을 주기로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바이어가 독점 판매권만 보유하고 마케팅을 잘못할 경우 다른 좋은 바이어가 나타나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소 주문 수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판매 권한의 기한을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년 정도로 설정하고 만족할 경우 갱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 결제, 딜리버리, 품질 조건 등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는 조항은 가능한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분쟁 해결 조항에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실패하였을 경우 가능한 덴마크 상사 중재 기관이나 덴마크 법원의 판정을 따르도록 하기보다는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국제 상사 중재 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 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덴마크는 비즈니스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 및 투자 진출 시 제도나 법규상의 애로 사항은 특별히 없다. 다만 문화 및 생활 방식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바이어의 경우 대체적으로 회신이 느리기 때문에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일년 휴가가 5~6 주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바쁘다. 따라서 아주 급하고, 충분히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즉각 회신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끈기 있게 접촉해야 한다.

덴마크 사람들의 일 처리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느린 편이나 대신 우리보다 꼼꼼한 편이다. 따라서 빨리 처리하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이러한 경향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한다.

의사 결정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따라서 한번 거래를 하면 장기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처음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공급업체보다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공급업체 변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초기진출이 쉽지 않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수출 성공 사례: 덴마크 DIY 공구 유통 체인 진출 사례

- 회사명: 태흥이기공업사(주)
- 주업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
- 홈페이지: www.tae-heung.com

태흥이기공업사는 과수원이나 정원, 산림용 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이다. 덴마크 시장 진출을 위해 사전 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DIY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는 덴마크의 시장 여건은 태흥이기공업사가 생산하는 우수한 품질의 톱과 잘 맞아 떨어져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문제는 유통채널이었다.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덴마크 내에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건축공구 DIY 유통 매장을 주 타깃으로 선정하였다. DIY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 정원관리를 포함한 각종 가사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덴마크인의 특성상 각종 공구는 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고 다양한 공구를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대형 유통점은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장 공략 대상이었다.

사전에 매장을 방문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본 뒤 해당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구매 담당자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브로슈어, 샘플 등 기업과 제품을 잘 소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동원하여 구매담당자의 방문을 계속 두드렸다. 까다로운 샘플 테스트 등 구매 담당자의 수준을 만족시키고 마침내 어렵다는 유통체인점과 첫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다.

태흥이기업의 덴마크 시장 진출은 어렵고 까다롭지만 품질과 가격 수준을 만족시키면서 유통매장에 진출함으로써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사 제품을 덴마크에 판매 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라고 평가된다.

나. 투자 성공사례: 한국 유산균의 유럽 시장 진출

- 회 사 명: 켈바이오텍
- 주 업 종: 유산균원말, 분말제품, 기타 낙농제품 제조
- 홈페이지: www.cellbiotech.com
- 현지법인명: Cell Biotech Europe A/S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형태가 아닌 현지 법인으로 덴마크에 투자한 기업은 켈바이오텍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켈바이오텍은 유산균 전문기업으로 유산균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 위와 장까지 손실 없이 이동하도록 하는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였으며 특허를 받은 유산균 원말을 수출하여 2008년도에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켈바이오텍사는 2006년 9월 유럽시장 수출 및 R&D 공동연구를 위해 덴마크에 “켈바이오텍 유럽”을 설립하였는데 자본금 출자는 켈바이오텍이 90.9%(9억7000만원), 나머지 10%는 현지 생명공학 마케팅 전문가들이 투자하였다.

덴마크의 제약원료 최대 공급사인 Broste사 DSM사 등에 유산균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유럽 3개국과 공동 R&D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켈바이오텍의 유럽내 활동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동사의 정명준 대표는 “덴마크는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우리 나라와 상호협력시 다양한 기술이 교류돼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덴마크와의 성공적인 협업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바 있다.

기능성 식품원료 부문에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켈바이오텍은 바이오 R&D 분야는 매우 발달하였지만 원료물질이나 기능성 식품분야에서 취약한 덴마크에서 성공적인 투자 파트너로 성장 할 것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외국인의 주택 구입 및 임차의 경우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 업자를 접촉하여 주택을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코펜하겐의 임대 주택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여서 최소 2-3개월 전부터 물색하지 않으면 현지에 도착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주택 임차 시에는 3개월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정착금을 준비해야 한다. 임차 주택의 경우 퇴거 시 원상 복구를 해 놓아야 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원상 복구 관련 비용을 청구하며, 심한 경우 3개월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원상복구 비용지불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주 전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가격대 및 집 구조, 위치 등에 대해 사전 지식을 얻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사이트로는 www.scandiahousing.dk(영문 제공), www.bolig1.dk, www.boligportal.dk 등이 있다.

나. 행정 절차

주택을 구하고 나면 구청 (Kommune)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 거주 허가증(주한 덴마크 대사관 발급), 결혼 증명서, 자녀 출생 증명서 등이며 본인 및 가족 모두가 Kommune 관계자와 면담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Kommune에서 CPR 카드를 발급하여 주며 CPR 카드 발급과 동시에 의료 보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 보험증은 신청 후 6주 정도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 구좌 개설

CPR 카드가 없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여권과 본국 주소만으로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CPR 카드가 있는 사람은 여권, CPR 카드, 현 주소로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 구좌 개설 시 달러 구좌와 크로나 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크로나 구좌 개설 시 Dan Card와 VISA 겸용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물품 대금 지불 및 제세 공과금 납부 시 유리하다.

라. 전화 신청

덴마크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전화라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DKK 950,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DKK 1,650을 납부해야 하며, Mobile phone 가입 시에는 DKK 250을 납부해야 하고, 전화세는 3개월(분기) 단위로 청구된다. 참고로 현지 거주자가 한국에 Collect call로 전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8001+ 0382)를 누르면 한국어 안내가 나온다.

마. 비품 구입

현지 상점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을 한다. 토요일은 영업을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오후 2시까지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일요일은 12월과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을 제외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

□ 주요 상점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NETTO: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지에 가까운 곳에 매장을 많이 갖고 있어 이용에 편리하다.
- INCO: 이용 카드가 있어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각종 육류, 생선, 채소류, 부엌 음식물 등이 주종을 이루는 도매 상가이다.

- METRO: 일반 가정용품, 가전제품 및 부엌 음식물 등의 대형 매장으로 이용되며 카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 기타 IRMA, ISO, PRIMA, GOVA, Bilka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가구류는 IKEA, ILVA, IDEA, 개인 가구 상점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매년 1회 Bella Center에서 개최되는 가구 전시회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바. 자동차 구입

덴마크는 자동차 등록세가 수입 가격의 180%이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 가격이 우리나라의 거의 세 배에 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착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신차의 경우 우선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모델의 자동차 가격을 비교하여 적절한 차종을 결정하고, 차종이 결정되면 관련 자동차 딜러를 접촉하여 구입하면 된다.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동차 딜러를 접촉해서 구입하는 것이 손 쉬운 방법이나 가격이 약간 비싸다는 것이 흠이다. 광고를 통해 직접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면 딜러로부터 구입할 때보다 가격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을 통해 중고 차를 거래하는 www.bilzonen.dk, www.biltorvet.dk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 교육

만 7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9년간의 초등 교육이 의무적이며 의무 교육 이후 3년간의 고등학교(인문계 및 실업계) 과정 및 대학 과정의 취학이 가능하다. 대학까지의 모든 학비는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다. 현지 거주 비자 획득 후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덴마크 학교 또는 국제학교 중 선택이 가능하며 덴마크 학교의 경우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모든 교육은 덴마크어로 진행된다.

3년 정도 한시적 체류자의 자녀들은 대부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육은 영어로 진행된다. 국제학교 입학은 덴마크에서 거주 비자를 (일반인의 경우 CPR CARD, 외교관의 경우 외무성 발급 ID CARD) 획득한 후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의 경우 처음 입학할 때는 입학 서류 제출 시 Application Fee로 DKK 2,500을 내야하며, 등록금으로 DKK 22,500을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수업료만 내면 되는데 2008/2009학년도 연간 수업료는 아래와 같다.

- Pre-Kindergarten(K1, K2): DKK100,000
- Kindergarten 3 : DKK80,000
- 1학년-5학년 (Primary School): DKK80,000
- 6학년-8학년 (Middle School): DKK85,000
- 9학년 (Middle School): DKK90,000
- 10학년(Senior School): DKK102,000
- 11학년-12학년(Senior School): DKK114,000

인터내셔널 스쿨

학교 명	주 소	전 화	팩 스	E-Mail
Copenhagen International School (CIS)	Hellerupvej 22-26, 2900 Hellerup	(+45) 3946 3300	(+45) 3961 2230	cis@cisdk.dk

이 밖에도 코펜하겐 인근에 영국계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으며, 학제는 상기 미국계 인터내셔널 스쿨과 다소 상이하다. 오후스 등 덴마크 내 여타 대도시에도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아. 생필품 조달

생필품은 주요 슈퍼마켓(Fakta, Super Brugsen, Kvickly, NETTO, Fotex, Bilka, ISO, Matas 등)에서 매우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NETTO에서 구입 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자. 한국 식품 조달 여건

덴마크는 인근 독일과 달리 한국 식품점이 없어 인근 함부르크의 한국 식품점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계 마켓에서 고추장, 된장, 라면, 참기름, 조미료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한국 식품 구입이 편리해졌으나 가격은 한국에 비해 3-5배 정도 비싸고 품질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채소와 과일 등은 터키인, 아프가니스탄 인들이 운영하는 마켓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김치를 담기 위한 배추, 무 등도 구입이 가능하다.

차. 병원 이용 및 의약품 구입

덴마크의 경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CPR 카드를 받게 되면 치과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서비스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교관 신분은 보유한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병원을 이용하는 절차는 우선 흉닥터를 지정하여 이 의사로부터 1차 진료를 받은 후 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일 경우는 바로 종합 병원의 응급실로 가면 된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덴마크는 북위 55도 선상에 위치한 북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비와 바람이 많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기후가 변화한다. 2월에는 평균 영하 0.4℃, 7월에는 16.6℃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664mm 정도이며, 비가 오는 날은 연간 약 160일 정도이다.

2) 주요 도시의 기후 및 강수량

주요 도시 월평균 기온

(단위: °C)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코펜하겐	0.1	-0.1	2.0	5.7	10.9	15.1	16.4	16.3	13.2	9.5	5.1	1.8
오후스	0.2	0.1	2.3	5.8	10.8	14.1	16.2	15.9	12.1	8.7	4.4	1.8
오덴세	0.3	0.3	2.6	6.2	11.4	15.0	16.1	16.1	13.0	9.4	5.0	1.9
알보그	-0.4	-0.4	1.9	5.6	10.7	14.4	15.7	15.5	12.3	8.9	4.3	1.3

주: 상기 수치는 1961-1990년간의 평균 수치임

자료: Danish Metrological Institute

주요 도시 월평균 강수량

(단위: mm)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코펜하겐	46	30	39	39	42	52	68	64	60	56	61	56
오후스	60	41	48	42	50	55	67	65	72	77	80	68
오덴세	52	36	41	38	46	53	62	61	60	62	69	58
알보그	54	35	44	38	49	54	64	67	72	76	75	62

주: 상기 수치는 1961-1990년간의 평균 수치임

자료: Danish Metrological Institute

3) 출장 시 추천 복장

9월 이후 4월까지의 가을철 및 겨울철에는 비가 자주 오므로 방수용 점퍼 및 우산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11~3월은 본격적인 겨울철로서 보온 및 방수 효과가 좋은 두꺼운 외투가 필요하다. 덴마크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 온화한 편이나 눈보다는 비가 많이 오고, 습기를 동반하여 체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나 점퍼가 필요하다.

6~8월(하절기)에는 평균 기온이 16~18°C 정도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하절기 온도가 다소 상승하였고, 7월에는 최고 31°C까지 올라 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늦여름이나 초가을 복장과 여름 복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절기는 건기에 해당하여 습도가 낮아 우리나라처럼 무덥지 않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EU주요국과 함께 하계 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즉, 서머타임 제도를 시행한다. 서머타임이 시행되는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한국이 7시간 앞서가며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10월 말부터 익년 3월 하순까지는 한국이 8시간 앞서간다. 따라서 한국의 24시는 덴마크의 동절기에는 16시, 하절기에는 17시에 해당된다.

2) 서머 타임

서머 타임은 인근 주요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 새벽2시를 기해 실시되며 (2008년도의 경우 3월 29일부) 10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2시를 기해 해제 (2008년의 경우 10월 25일 부)되고 있으나, 반드시 상기 일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의 서머타임 시행 및 종료일을 각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근무 시간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09:00-17:00이나 개인별로 변동 근무 시간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07:00-15:00까지 근무하는 사람도 많다. 또한 금요일은 주말로 보다 이른 시간인 오후 3시 이전에 퇴근하는 업체도 많다.

4) 업종별 근무 시간

- 공공기관: 월 - 목 09:00 - 17:00 (금 09:00 - 16:00)
- 우 체 국: 월 - 금 10:00 - 17:00 (토 10:00 - 17:00)
- 은 행: 월 - 금 09:30 - 16:00 (목 09:30 - 18:00)
- 백화점 및 대형 상점
 - 월: 10:00 - 19:00
 - 화, 수: 10:00 - 18:00
 - 목, 금: 10:00 - 20:00
 - 토: 10:00 - 17:00
- 일반 상점: 월 - 금 09:00 - 20:00 (토: 08:00 - 17:00)

한편, 덴마크는 그 동안 주유소나 영세 상점을 제외한 백화점, 할인점, 일반 상점들의 일요일 및 공휴일 영업 일수를 연간 8일로 제한했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영업 가능한 일요일과 공휴일을 20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상점들은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12월 전체 일요일 그리고 나머지 6일은 본인들이 선택해 영업을 하고 있다.

5) 회계 연도

정부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 주요 단위

구 분		단 위
길 이		센티미터(cm) 미터(m), 킬로미터(km)
무 게		그램(g), 킬로그램(kg), 톤(t)
부 피		입방 센티미터(Cm ³), 입방 미터(m ³), 리터(L)
넓 이		평방 센티미터(cm ²), 평방미터(m ²),
전기	일반 가정	50HZ, 220V - 2 Round Plug 형태 - 3 Round plug를 쓰는 경우 가운데 단자는 접지용임
	공장 및 특별 용도	50Hz, 380V, 3 Round Plug 형태
기타		모두 EU 규격에 준하고 있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면제 협정

- 한국과 덴마크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혹은 제3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덴마크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권(Work Permit)은 입국 전 주한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사증과 함께 신청 하여야 하며, 유학생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정 한도를 넘지 않은 파트타임 노동은 가능하다.

2) 비자 발급처

□ THE EMBASSY OF THE KINGDOM OF DENMARK

-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 빌딩 5층
- (전화) - (+82-2) 795-4187, (팩스) - (+82-2) 796-0986
- (WEB) - www.ambseoul.um.dk
- (휴일) - 토, 일요일, 한국공휴일, 부활절(2006.4.13-17) 연휴, 크리스마스 등
- (Email) - selamb@um.dk
- (근무 시간) - 09:00 - 16:30
- (소요 비용) - DKK 150
- (구비 서류) - 비자 신청서, 사진, 입국 사유 증명서, 결혼 증명서(가족 동반 시), 여권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 4~6주

3) 방역

- 필요 없음.

4) 출입국 절차 및 유의 사항

- 출입국 시 별도의 유의 사항은 없다.
- 출국 시 여권 및 항공권 검사, 보안 검사를 거쳐 출국할 수 있다.
- 최근 항공기 탑승 시 보안 검사가 강화되어 식칼, 액체류 등은 기내 휴대 반입이 금지되며, 짐으로 수화물칸 반입만 가능하다.
- 입국 시에는 여권 제시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5) 세관 신고

- 휴대품 과다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18세 이상 성인 1인당 양주 1병, 담배 200개피 이상 휴대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환율/ 환전

1) 통화 단위 및 종류

덴마크의 화폐 단위는 Danish Kroner (약어로는 DKK) 이다. 1크로나는 100 Øre(외레)이며 50, 100, 200, 500, 1000크로나의 지폐가 있다. 동전으로는 1, 2, 5, 10, 20 크로나 및 25, 50 외레의 7종이 있다.

2) 환율 체제

덴마크는 유로화 가입국이 아니지만 1998년 하반기부터 유로화 통화 바스켓에 포함시키면서 유로화에 대한 환율을 하루에 2.25%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유로화에 연동된 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1유로당 7.42~7.44 사이에서 변동되고 있다. 유로화와 같은 추세를 보이는 크로나화의 2008년 평균 환율은 1달러당 5.0986 크로나이다.

연도별 평균 환율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US1불당DKK	7.8812	6.5899	5.9919	6.0034	5.9470	5.4456	5.0986

자료: 덴마크 중앙은행

3) 환전

덴마크 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자유로운 외환의 환전이 가능하다. 단, 총 환전 금액이 6만 크로나를 초과하는 경우 환전 은행은 동 거래 내역을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공항, 은행 및 시내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여행자 수표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22 크로나이며, 수수료 한도는 최소 44크로나에서 최대 220크로나이다. 즉 소액 여행자 수표 1매를 환전하더라도 44크로나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10매 이상 일 경우는 220 크로나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자 수표 지참 시에는 고액권을 준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공항 및 은행에서의 환전이 호텔 및 기타 환전소에서의 환전 보다 유리한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4) 신용카드 사용

덴마크 내 대부분의 상점이나 음식점에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 항공편

현재 코펜하겐-서울 간 직항 노선은 없으며 KAL, Air France, Lufthansa, KLM, British Air, Fin Air 등을 이용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 프라하, 헬싱키 등을 경유하거나 SAS의 도쿄-코펜하겐 혹은 북경-코펜하겐 노선을 이용, 도쿄(나리타 공항)나 북경을 경유 코펜하겐에 도착할 수 있다(비행 시간은 경유지에 따라 다르나 총 12-14시간 정도 소요됨).

□ 선편

덴마크항구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항하는 라인은 없으며, 대부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나 독일의 함부르크를 통해 운항하고 있다. 총 소요일수는 약 45일 정도이며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덴마크로부터 한국까지 DOOR TO PORT 요금은 약 10,800크로나(약 2,250달러) 정도이나 반대의 경우, 즉 한국에서 덴마크까지의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2)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으로는 택시, 기차(전철),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택시는 공항에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바가지 요금 우려는 전혀 없다. 공항 이외의 지역에서는 택시를 전화로 부를 수 있으며 노상이나 택시 주차장에서 승차가 가능하다. 택시 합승은 불가능하다. (코펜하겐에서의 택시 Call 전화: 3535 3535, 7025 2525)

택시 서비스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전화로 호출 시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 정류장이나 도로에서 빈 택시(FRI 표시)에 승차할 수 있다. 택시 기본 요금은 2008년 기준으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DKK 24이며, 전화로 택시를 호출할 경우 DKK 37 이고, 1Km 당 11.50크로나가 추가 된다. (오후 6시 이후 저녁에는 1Km 당 12.50크로나가 추가되며, 주말 저녁에는 1Km 당 15.80크로나가 추가됨).

기차나 전철(S-tog)을 이용할 경우 공항 1층의 기차 표지판을 따라가면 지하에 있는 전철 승강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지하철(Metro)은 공항 2층에서 승강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버스는 공항 건물 앞의 정류장에서 탑승이 가능하다. 전철과 지하철, 버스는 상호 환승이 가능하며 거리에 따라 구간이 정해져 있다. 전철 및 버스 요금은 2구간에 기본 요금 20크로나이며, 2구간 10회 사용권 구입 가격은 125크로나이다. 2구간 티켓의 경우 2구간 내에서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환승이 가능하다.

□ 공항에서 코펜하겐 시내 이동

코펜하겐 국제공항은 코펜하겐 시내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택시를 이용할 경우 20분 정도면 도심에 진입할 수 있다. 요금은 약 200크로나로 40달러 정도이다.

코펜하겐 공항에서 전철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시내까지의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이며 요금은 편도 30크로나다. 만약 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제2터미널 앞에서 250S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데 코펜하겐 중앙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이며 요금은 30크로나로 기차와 동일하다(기차와 버스의 환승 가능함). 한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10회 사용이 가능한 클럽형 티켓을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데 가격은 2존의 경우 125크로나, 3존의 경우는 165크로나이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3존임).

3) 기차 이용

기차를 이용하여 지방 도시를 가고자 하는 경우 어떤 기차 정류장에서든 가능하다. 덴마크와 덴마크 내 주요 도시를 잇는 열차의 소요 시간과 요금은 아래와 같다.

덴마크 내 주요 구간 열차 소요 시간 및 운임(2008년 기준)

구분	소요 시간	일반석 요금(DKK)	DSB1(DKK)
Copenhagen-Odense	1시간30분	224	336
Copenhagen-Aarhus	3시간	311	467
Copenhagen-Herning	3시간	311	467
Copenhagen-Esbjerg	3시간 15분	311	467
Copenhagen-Frederikshavn	6시간	360	540

기차 여행시 꼭 예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장거리 여행 일반석의 경우 미리 좌석을 예약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예약비 20크로나).

이외 덴마크 내 교통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 www.dsb.dk (덴마크 기차)
- www.dsb.dk/s-tog (덴마크 전철)
- www.m.dk (덴마크 지하철)

4) 우편 제도

덴마크에서는 등기, 등기 속달, 항공우편, EMS, DHL 등 특사 우편 모두가 이용 가능하다. 일반 항공 우편의 경우 덴마크에서 한국까지의 배달 시간은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DHL 등 특사 우편의 경우는 3일 정도가 걸린다.

우체국을 이용한 편지 및 소포 발송 시 소요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편지 규격, 무게 별 우편 요금(2008)

구분	덴마크 내(DKK)	유럽(DKK)	기타 지역(DKK)
규격 23x17cm 무게 50g	5.50	7.75	8.75
규격 33x23cm 무게 50g 이하	6.50	11.25	14.50
무게 100g 이하	10.00	16.00	22.50
무게 250g 이하	16.00	26.00	39.00
무게 500g 이하	26.00	43.50	63.50
무게 1,000g 이하	34.00	71.00	106.00

한편 소포 발송 요금은 2008년 기준으로 덴마크 내 지역일 경우, 1Kg 이하 70크로나, 5Kg 이하 90크로나, 10Kg 이하 140크로나, 덴마크 외 지역일 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한국
일반	기본료	DKK165	DKK165
	Kg당 금액	DKK13	DKK39
속달	기본료	DKK165	DKK165
	Kg당 금액	DKK13	DKK71

덴마크에서 외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에는 A: Prioritaire 또는 B: Economique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데, A: Prioritaire는 B: Economique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만 배달 기간이 짧고, B: Economique는 A: Prioritaire 에 비해 요금은 싸지만 배달 기간이 길다. 만약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A: Prioritaire로 간주된다. 우편물의 등기 발송을 위해서는 추가 60크로나의 요금을 내야 한다.

5) 국제 통신

덴마크의 통신 시장은 국영 통신 기업인 TDC의 독점 상태에 있었으나 1996년 7월 1일 덴마크 통신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다. 2008년에도 여전히 통신망은 TDC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TDC로부터 통신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무선 통신 사업자로선 TDC, Sonofon, Telia Telecom, 3 등 4개사가 있다

□ 덴마크 유선 통신망 보유 업체

- TDC A/S
 - ADD : Nørregade 21, DK-0900 Copenhagen C
 - TEL : (45) 3343 7777
 - FAX : (45) 3343 7619
 - 홈페이지: www.tdc.dk

□ 덴마크 무선 통신 서비스 업체

- TDC A/S
 - ADD : Kannikegade 16, 8000 Aarhus C
 - TEL : (45) 8933 7777
 - FAX : (45) 8933 7719
 - 홈페이지: www.tdc.dk
- Sonofon A/S
 - ADD : Skelagervej 9, 9100, Aalborg
 - TEL : (45) 7212 6000
 - FAX : (45) 7212 7070
 - 홈페이지: www.sonofon.dk
- Telia Telecom A/S
 - ADD : Ejby Industrivej 135, 2600, Glostrup
 - TEL : (45) 8831 3131
 - FAX : (45) 8831 3030
 - 홈페이지: www.telia.dk
- 3 (3세대 모바일폰 서비스 제공업체)
 - ADD : Arne Jacobsens Alle 17, 2300, Copenhagen S
 - TEL : (45) 3333 0135
 - FAX : (45) 3333 0155
 - 홈페이지: www.3.dk

□ 통신 요금

- 이동 전화기: DKK 0.39-1.20/분(계약 조건에 따라 약간씩 상이)
- 유선 전화기: DKK 0.25/분(유선 전화기에 전화할 경우), DKK1.50/분(무선 전화기에 전화할 경우)

□ 현지에서 한국으로 통화 방법

- 00 + 82 (한국) + 지역코드 (예: 서울 2) + 전화번호

또한 현지에서 한국으로 COLLECT-CAL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3분당 5,310원 정도이다. (호출 번호: 8001-0382) 호텔 룸에서 국제전화 사용료는 일반 가정 전화 요금의 6배 수준이며 호텔마다 통화료가 상이하다.

6) 국내 통신

□ 현지 공중전화 이용법

카드식과 동전식이 혼용되고 있으며, 동전식은 1, 5, 10, 20크로나 동전이 사용 가능하다. 모든 공중 전화기에는 사용 설명서가 그림으로 알기 쉽게 부착되어 있으며 국제전화 코드는 00이고 시외 통화도 시내와 마찬가지로 별도 코드 없이 8자리 전화번호만 누르면 된다. (덴마크 내 지역 코드가 별도로 없음). 카드는 KIOSK라고 불리는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7) 인터넷 환경

덴마크는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이 한국을 앞지를 정도로 인터넷 통신 환경은 좋다. 여행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째는 투숙 호텔에서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카페에서 이용하는 방법, Statio1 주유소, 맥도날드, Barresso 카페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 호텔에는 각 룸에 인터넷 라인이 있기 때문에 호텔방에서 사용이 가능 하며,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는 시간당 사용료가 30크로나이며, Statio1 주유소, 맥도날드, Barresso 카페 매장에서 이용할 경우는 장소마다 가격이 다르나 보통 분당 1크로나 정도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 Radisson SAS Scandinavia Hotel

- ADD : Amager Boulevard 70, 2300, Copenhagen S
- TEL : (45) 3396 5000
- FAX : (45) 3396 5500
- 홈페이지: www.radissonsas.com
- 가격
 - 정상 가격: DKK 1,895/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KOTRA 할인가격: DKK1,145/ 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도심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나 전시장인 Bella Center에 가깝고 코펜하겐에서는 최고급 호텔에 속함

□ MARRIOTT HOTEL

- ADD : Kalvebod brygge 5, 1560, Copenhagen V
- TEL : (45) 88 33 99 00, FAX : (45) 88 33 99 99
- 홈페이지: www.marriott.dk
- 가격
 - 정상 가격: DKK 2,299/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KOTRA 할인 가격: DKK1,199/Single 및 Double(조식 미포함)
- 도심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해변에 있으며, 코펜하겐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깨끗한 호텔임

□ IMPERIAL HOTEL

- ADD : Vester Farimagsgade 9, 1606, Copenhagen V
- TEL : (45) 3312 8000, FAX : (45) 3393 8031
- 홈페이지: www.imperialhotel.dk
- 가격
 - 정상 가격: DKK 1,115/Single(조식 미포함), DKK1,315/Double(조식 미포함)
 - KOTRA 할인가격: DKK1,230-1,570/Single(조식 미포함), 계절에 따라 변동
- 도심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호텔에 속하나 상기 2개의 호텔과 비교할 때 수준이 떨어지는 편임

□ ADMIRAL HOTEL

- ADD : Toldbodgade 24, 1253, Copenhagen K
- TEL : (45) 3311 8282, FAX : (45) 3332 5542
- 홈페이지: www.admiralhotel.dk
- 가격: DKK 975/SINGLE(조식 미포함), DKK1,310/Double(조식 미포함)
- 덴마크 여왕이 거주하는 아말리엔 궁에 가깝고, 해변에 위치한 고급 호텔임.

□ ASTORIA HOTEL

- ADD : Banegaardspladsen 4, DK-1570, Copenhagen V
- TEL : (45) 3342 9900, FAX : (45) 3342 9999
- 홈페이지: www.hotelastoria.dk
- 가격: DKK 825-1,395/SINGLE(조식 포함), DKK 1,495/Double(조식 포함)
- 코펜하겐 중앙역 바로 옆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 호텔에 속함.

□ CITY HOTEL

- ADD : P. Skrams Gade 24, 1054, Copenhagen K
- TEL : (45) 3313 0666, FAX : (45) 3313 0667
- 홈페이지: www.hotelcity.dk
- 가격
 - 정상 가격: DKK 1,095/Single(조식 포함), DKK 1,295/Double(조식 포함)
 - KOTRA 할인 가격: DKK 970/Single(조식 포함), DKK 1,170/Double(조식 포함)
- KOTRA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에 속하나 Room이 적은 편임.

□ OPERA HOTEL

- ADD : Tordenskjoldsgade 15, 1055, Copenhagen K
- TEL : (45) 3312 1519
- FAX : (45) 3332 1282
- 홈페이지: www.hotelopera.dk
- 가격
 - 정상 가격: DKK 1,180/Single 및 Double(조식 포함)
 - KOTRA 할인 가격: DKK 660-1,150/Single(조식 포함), 계절에 따라 변동
- KOTRA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로서 중급에 속함.

□ CAB INN City

- ADD : Mitchellsgade 14, DK-1568 Copenhagen C
- Tel: (+45) 33 46 16 16
- Fax: (+45) 33 46 17 17
- Email: city@cabinn.com
- Web: www.cabinn.dk
- 가격
 - Standard room: 1인실 545 DKK, 2인실 665 DKK, 3인실 785 DKK
 - Commodore: 1인실 645 DKK, 2인실 765 DKK
 - Captains Class: 1인실 745 DKK, 2인실 865 DKK
- 중앙역 근처에 있으며, 코펜하겐 시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투숙할 수 있는 호텔. Room이 매우 적은 것이 단점이나 비교적 깨끗한 편임.

□ Copenhagen Strand

- ADD : Havnegade 37 DK-1058 Copenhagen
- Tel: (+45) 33 48 99 00
- Fax: (+45) 33 48 99 01
- Email: copenhagenstrand@arp-hansen.dk
- Web: www.copenhagenstrand.dk
- 가격
 - 정상 가격: DKK 1,540/Single(조식 포함), DKK 1,880/Double(조식 포함)
 - KOTRA 할인가격: 싱글 DKK 850-1,390, 더블 DKK 995-1,660 (조식 포함)
- KOTRA 사무실 바로 근처에 있는 별 3개 수준의 호텔로서 인터넷 사용 가능

□ Comfort Hotel Østerport

- ADD : Oslo Palds 5, 2100 Copenhagen Ø
- Tel: (+45) 70 12 46 46
- Fax: (+45) 33 12 25 55
- Email: co.osterport@choice.dk
- Web: www.choicehotels.dk/hotels/dk003
- 가격
 - 정상 가격: 싱글 DKK 1,395, 더블 DKK 1,595 (계절에 따라 변동, 조식 DKK 95)
- 코펜하겐 Østerport역 주변에 있는 호텔로 인어 동상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

□ 호텔의 종류

- 크로(KRO):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숙박 시설로 옛날 국왕의 지방 행사 때 사용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당시의 독특한 분위기를 갖고 있음
- 고성 호텔(CASTLE HOTEL): 원래 지방 영주의 저택을 호텔로 개조한 것으로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고전적인 분위기로 인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미션 호텔(MISSION HOTEL):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숨겨진 명소 같은 곳으로 덴마크의 노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임
- 일반 호텔: 호텔은 작고 깨끗하나 요금은 비싼 편임.

2) 한국 식당

□ Restaurant Korean Palace (비원)

- ADD : Peder Skramsgade 15, 1054 Copenhagen K
- TEL : (45) 3314 9330
- 코펜하겐 시내에 있으며 저녁 시간만 영업을 하나 사전에 예약할 경우 점심도 가능함. (일요일은 휴업)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이 주요 메뉴임.

□ Miga (미가)

- ADD : Gammel Kongevej 33B, 1610 Copenhagen
- TEL : (45) 3323 3667
- 코펜하겐 시내에 있으며, 점심, 저녁 시간 모두 영업(일요일은 휴업)을 하며 불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육개장 등 메뉴가 매우 다양함

□ Seoul Restaurant (서울식당)

- ADD : Skjulhøj Alle 8 a 2720 Vanløse
- TEL : (45) 3871 8886
- 코펜하겐 시내에서 차로 15분 정도 벗어난 곳에 위치, 대부분의 한식을 맛볼 수 있으며, 중식도 일부 가능함.

□ Sakura (벚꽃)

- ADD : Moentergade 22 1116 Copenhagen K
- TEL : (45) 3313 1189
- 스시, 사시미 등 일식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한식도 일부 있음. 점심, 저녁 가능하며 (일요일은 휴업) 가격은 위 세 곳의 한국 식당보다 비싼 편임.

□ O MO NIM (어머님)

- ADD : GASVORKSVEJ 21
- TEL : (45) 3131 5220
- 중앙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수~토요일 저녁만 영업하며, 일식과 한식을 겸하고 있음.

3) 중국 식당

□ CANTON

- ADD : Vesterbrogade 20, 1620 Copenhagen V
- TEL : (45) 3331 8136
- 시내에 있으며 코펜하겐에서 중국요리를 가장 잘 한다고 알려진 음식점.

□ ROYAL GARDEN

- ADD : DRONNINGENS TVAERGADE 30
- TEL : (45) 3315 1607
- 시내에 있으며 다른 음식보다는 비교적 담섬 요리를 잘하는 식당임.

□ DONG YUAN

- ADD: Holbergsgade 17, 1057 Copenhagen K.
- TEL : (45)3332 8388
- 값이 비교적 저렴하여 단체 관광객이 자주 이용.

□ FLOATING RESTAURANT SEA PALACE

- ADD : HAVNEGADE KAJPLADS 139
- TEL : (45) 3393 8889
- 시내에 위치한 일반 중국식당임.

4) 일본 식당

□ KYOTO

- ADD : SAS SCANDINAVIA HOTEL, AMAGER BLVD 70
- TEL : (45) 3332 1674
- Radisson SAS Scandinavia Hotel내에 소재한 일식당으로 음식은 깨끗하나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임.

□ Sticks'n Sushi

- ADD : Nansensgade 59, Copenhagen K
- TEL : (45) 3311 1407
- 몇 곳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며 스시와 꼬치 요리를 잘함.

5) 덴마크 식당

대부분의 덴마크 식당은 음식 메뉴가 양식당과 큰 차이가 없으나 덴마크 전통 음식인 스뮌레브뢰 (Smørrebrød)라고 하는 호밀 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 이나 치즈 등을 넣은 오픈 샌드위치를 맛볼 수 있음.

□ LA-KAJEN

- ADD : Sundkrogskej 17, 2100 Copenhagen
- TEL : (45) 3920 3022

□ KANAL CAFEEN

- ADD : Frederiksholms Kanal 18, Copenhagen K
- TEL : (45) 3311 5770

□ Kongens Kælder

- ADD : Gothersgade 87, Copenhagen K
- TEL : (45)3312 8719

6) 기타 양식당

□ Albert K at The Royal (고급 이태리 식당)

- ADD : Hammerichsgade 1, 20 th floor, København V
- TEL : (45) 3342 6161

□ Kong Hans Kælder (고급 프랑스 식당)

- ADD : Vingårdsstræde 6, København K
- TEL : (45) 3311 6868

3) 대표 먹을거리

덴마크는 축산 낙농업이 발달하여 치즈나 버터 등의 유제품과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육류 요리가 발달하였으며 수산물로는 연어와 청어를 즐겨 먹는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스뵈레브뢰(Smørrebrød)가 있는데 이는 호밀빵 위에 육류, 어류, 달걀이나 치즈 등을 넣은 오픈 샌드위치로 흔히 맥주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스냅스(Snaps)가 곁들여진다. Flæskesteg는 오븐에 구운 돼지고기 요리로 고기와 함께 붙어 나오는 바삭 바삭한 돼지 껍질을 먹는 것이 별미이며, 감자와 함께 먹는 덴마크 식 미트볼 요리인 Frikadeller과 폭찹 요리인 Koteletter 등도 덴마크인들이 주식으로 많이 먹는 요리들이다. 디저트로 커피와 함께 먹는 데니쉬 페스트리도 유명한데 버터를 곱곶이 발라 반죽을 하고 필링과 토핑을 곁들인 이 빵은 1840년경 비엔나에서 전해졌다고 하여 비너브로트(Wienerbrød, 비엔나 빵) 이라고 불린다.

아. 관공서 관행

관공서 공무원들은 매우 친절하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신하나 처리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다. 뇌물 수수나 급행료 징수 등의 불법 행위는 일체 없다. 주요 기관이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지수에서 덴마크는 항상 최상위권에 속한다.

관공서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화, 팩스, E-mail을 통한 문의 회신 및 업무 처리도 매우 친절하게 이루어진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직접 방문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서로 간의 시간 절약을 위해 가급적 직접 면담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관공서 경향을 보면 먼저 전화나 E-MAIL 등으로 연락을 하고 면담 시에는 반드시 RECEPTION에서 안내를 받아 면담이 이루어진다.

자. 공휴일

2009년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명	영문
1월 1일(목)	신년	New Year's Day
4월 9일(목)~13일(월)	부활절	Easter Holiday
5월 1일(금)	노동절 (반휴일)	Workers Day
5월 8일(금)	대기도일	Great Prayers Day
5월 21일(목)	승천일	Ascension
6월 1일(월)	성령강림절	Whitsuntide
6월 5일(화)	헌법제정일 (반휴일)	Constitution Day,
12월 24일(수)~26일(금)	크리스마스 연휴	Christmas day & Boxing day
12월 31일(수)	신년 이브	New Year's Eve

□ 출장 시 업체 상담이 어려운 기간

4월 부활절 기간, 7월 둘째 주~8월 말까지는 Industrial Holiday로 업체 및 공공 기관 근로자의 대부분이 휴가에 들어가며, 동 기간 전후 1주일을 포함한 기간 중 담당자 부재로 비즈니스 상담이 어렵다.

동계 기간 중에는 12월 중 크리스마스 이전인 12월 20일부터 신년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무에 들어간다. 하계 휴가 기간과 동계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중에는 비즈니스 출장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 시 유의 사항

1) 여행 준비

덴마크는 북위 55도 선상에 위치한 북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멕시코만 난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화한 편이나 연중 바람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기후변화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10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덴마크를 방문할 경우에는 날씨가 우리나라 초겨울 이상의 기후임을 감안하여 두꺼운 옷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방수가 가능한 자켓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6월-8월 말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20℃를 넘는 매우 좋은 날씨가 지속되면서도 한국의 여름처럼 무덥지가 않아, 여행하기에 매우 좋은 편이다. 2월에는 평균 영하 0.1℃, 7월에는 평균 16.4℃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664mm 정도이다.

□ 비에 대한 대비

비가 오는 날은 연간 약 160일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이며, 특히 9월 이후의 가을 및 겨울, 3~4월까지의 기간 중 집중되므로, 동 기간에 덴마크 여행 시 필히 소형 우산, 또는 우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행 여건

□ 치안

최근 들어 외국 난민 및 동유럽 인구의 유입 증가, 마약 복용자 증가 등으로 가끔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치안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며, 집단 범죄, 흉악 범죄 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간 외출 등을 해도 무방하다. 최근 동유럽 인력의 유입에 따라 소매치기가 많다. 특히 공항에서 동전 떨어진 것을 집으려다 또는 잠깐 한눈은 파는 사이에 가방을 소매치기 당하는 등 소지품 분실 사례가 빈번하며, 코펜하겐 중심부에 소재한 중앙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한다든가, 호텔 Check-in할 때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모든 곳을 다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택시를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사무실, 호텔 등에서 전화로 부를 수도 있다. (코펜하겐 시내 택시 전화: 3535 3535, 7025 2525) 택시 요금은 신용카드로도 지불 가능하다.

□ 응급

여행시 급한 발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며(전화 112를 호출 앰불런스-FALCK 서비스 가능) 입원비는 위급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며, 그 이후부터는 입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주 일반적인 의약품은 제외하고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살수 없기 때문에 감기,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비상 약품은 여행 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자주 걸리기 쉬운 감기(influenza)의 경우, 별도의 감기약을 처방하지 않고 휴식 등 자연 치유를 권하는 점이 특색이다.

□ 팁 관행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호텔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 줄 경우 반드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황을 고려하여 감사 표시로 약간의 팁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1~2 달러 정도) 음식점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이미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팁을 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나 특별한 감사표시를 하고 싶을 경우 음식 대금의 10% 이하의 팁을 주어도 무방하다. (과도한 팁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식수

덴마크인들은 자국의 환경에 대한 신뢰가 깊은 관계로 일반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카. 유용한 연락처

구분	기관명 및 연락처
현지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ske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 (+45) 3344 0000 Fax: (+45)7012 1080 - Add : Holmens Kanal 2-12, 1092 Copenhagen K ○ Nord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 (+45) 3333 3333 Fax: (+45)3250 2382 - Add : Christiansbro Strandgade 3, 0900 Copenhagen C ○ BG Bank 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 (+45) 7011 9959 Fax: (+45)3914 4899 - Add : Nørre Voldgade 68, 1390 Copenhagen K ○ Jyske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 (+45) 3378 7878 Fax: (+45)3378 7575 - Add : Vesterbrogade 9, 1780 Copenhagen V
현지경제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회의소 (HTS; THE DANISH CHAMBER OF COMME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 BOERSEN, DK-1217, KBH K - TEL : (45) 70 13 12 00 - FAX: (45) 70 13 12 91 - WEB: www.htsi.dk - 기능: 상공인들의 이익 도모 및 대변 ○ 전국경제인협회(THE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 H.C. ANDERSENS BOULEVARD 18, DK-1790 KBH V - TEL: (45) 9712 6000 - FAX: (45) 9722 3060 - 기능: 덴마크 내 제조업체의 이익대변 및 수출진흥활동 ○ Danish Slaughter House Association(Danske Slaughterier: 덴마크 도축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 Axeltorv 3, DK-1609 Copenhagen V. - Tel: (+45)3311 6050, Fax: (+45)3311 6814 - WEB: www.di.dk - 기능: 덴마크 Slaughter House의 각종 이익 대변 ○ Denmark Ship Owners Assoc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 Amaliegade 33, DK-1256 Copenhagen K. - Tel: (+45)3311 4088 - Fax: (+45)3311 6210 - 기능: 덴마크 내 선주들의 이익 대변 ○ Danish Fur Producer Assoc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 Langagervej 60, DK-2600 Glostrup - Tel: (+45)4326 1000, Fax: (+45)4326 1126 - 기능: Fur 제조업체들의 이익 대변
대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 SVANEMOELLEVEJ 104, 2900 HELLERUP - TEL: (+45) 3946 0400, FAX: (+45) 3946 0422 - 영사과 전화: (+45) 3946 0405
KOT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 TRADE CENTER, COPENHA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D: HOLBERGSGADE 14, 1057 COPENHAGEN K - TEL: (45) 3312 6658, FAX: (45) 3332 6654 - 관장: 정보영
한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45) 3331-6070, Fax: (+45) 3331-5750 - 핸드폰: (+45) 4096-5070 - E-mail: dankore@get2net.dk - 성명: 이준택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물가

덴마크의 물가는 매우 비싼 편이다. 여행객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한국과 비교할 경우 2-4배 이상 비싼 편이다. 이는 모든 물건 가격에 부가세가 25%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가 고소득 국가인 관계로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매우 높다. 예를 들면 담배 값은 우리나라의 3배, 맥도널드 햄버거 가격은 2-3배 정도 비싸다.

2) 쇼핑 장소 및 특산품

코펜하겐에서 제일 유명한 쇼핑 장소는 콘겐스뉴토르(Kongens Nytorv) 광장과 시청 사이에 위치한 Walking street로 이곳에는 Magasin 백화점, Illum 백화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Porcelain 제품으로 유명한 Royal Copenhagen, 은 제품으로 유명한 George Jensen (게오르그 옌센), 사가 링크, 호박(Amber), 덴마크 고급 신발인 ECCO등을 판매하는 유명 상점이 밀집해 있다.

3) 주요 쇼핑 센터 및 상점

쇼핑 센터 및 상점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Magasin du Nord	Kgs. Nytorv 13, København K +45 33 11 44 33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Dansk Møbel Kunst	Bredgade 32, København K +45 33 32 38 37	덴마크 디자인 가구
Dyrberg/Kern	Niels Hemmingsens Gade 4, København K +45 33 93 73 77	덴마크 디자인 보석, 시계, 의류
Ecco	Østergade 55, København K +45 33 12 35 11	덴마크 디자인 구두, 신발, 어린이 신발, 의류, 패션
GAD - Strøget	Vimmelskiftet 32, København K +45 33 15 05 58	도서, 문구, 음악, 비디오
Georg Jensen	Amagertorv 4, København K +45 33 11 40 80	덴마크 조지 앤슨 디자인 보석, 시계
Illums Bolighus	Amagertorv 10, København K +45 33 14 19 41	고급 덴마크와 유럽 디자인 가구, 램프, 유리 디자인, 부엌 기구, 수제품
Illum	Østergade 52, København K +45 33 14 40 02	고급 백화점, 디자인 패션, 브랜드 의류, 구두, 속옷, 가방, 보석, 시계, 모자, 스포츠, 여가
Br Legetøj, Strøget	Frederiksberggade11, København K +45 33 13 74 70	덴마크 체인 상점 장난감, 게임
Dansk Håndværk	Kompagnistræde 20, København K +45 33 11 45 52	덴마크 전형적인 수제품 상점

파. 관광 명소

1) 코펜하겐

인구 140만(인근의 코펜하겐 위성 도시 거주 인구 포함)의 북구 최대의 도시이며 코펜하겐의 어원은 덴마크어로 상업항구(Commercial harbour)라는 뜻으로 중세 이후 북구 최대의 상업 중심지이다. 1167년 ABSALON 대주교에 의해 건설되어 Christian 4세 때(1588-1648) 도시로서의 면 모를 갖추었으며 17세기 스웨덴의 침공, 18세기 흑사병, 두 번의 대 화재를 겪었으며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시 영국군에 의한 두 차례의 공격,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군의 점령 등 수난을 겪으면서도 운하, 인공 호수 등 옛모습을 간직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아말리엔보 왕궁: Amaliaenborg Palace

크리스천보 궁의 화재로 1794년 이래 왕궁으로 사용되고 있다. Frederiks 5세 기마상을 중심으로 4개의 로코코 양식 대저택이 위치하며 Frederik 3세의 왕비 Sophie Amalie의 이름을 따서 지은 궁전으로 여왕 재궁 시 국기가 게양되며 정오에 근위병 교대식이 진행되어 관광객들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왕궁 근처 바닷가에는 벨기에 조경 건축가 Jean Delongne가 설계한 Amaliehavn 정원이 있다.

□ 크리스천보 궁: Christiansborg Palace

국회의사당, 대법원, 여왕 접견실이 있으며 우측에는 1640년경 세워진 증권거래소 건물(현재는 상공회의소)이 있다. 왕궁은 코펜하겐의 건설자인 Absalon 주교가 건설한 성터 위에 세워져 있다. 현재의 궁은 1906-1907년에 재건립되었으며 원래 건물은 두 차례 (1794, 1884) 화재로 전소된 바 있다.

- 개방 시간(안내 관광만 허용)
 - 국회의사당(일): 10:00 - 11:00
 - 왕실접견실(목, 일): 11:00, 15:00

□ 로젠보성: Rosenborg Palace

Christian 4세에 의해 건설(1606-1617)된 왕궁으로 이곳에서의 볼거리는 성 지하에 있는 왕가 보물이다. 이곳에는 왕관 등 각종 왕실 귀중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여왕도 행사 때 이곳에서 왕관 등을 빌려서 사용한다고 한다.

- 개방 시간: 10:00 - 14:00 (화, 금, 일)

□ 인어상: The Little Mermaid

안데르센 동화의 비극적인 인어공주를 테마로 1913년 덴마크의 Edvard Eriksen(1876-1959)이 조각한 동상으로 덴마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관광객의 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아왔으나 2003년 9월 테러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발에 의해 완파된 후 다시 복원되는 등 수난을 겪어 왔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가끔 사진 촬영을 위해 인어 동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위가 미끄러워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게피온 분수: Gefion Fountain

북구여신 게피온이 네 아들을 황소로 만들어 스웨덴으로부터 Zealand섬을 끌고 왔다는 신화에 따라 세운 분수로 코펜하겐의 유래가 있는 관광 명소이다. 실제로 스웨덴에 있는 Vanern호의 자국이 Zealand 섬과 비슷하다.

□ 티볼리: Tivoli 공원

1843년 건설된 Tivoli 공원은 미국 디즈니랜드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26개의 식당, 연주회장, 각종 위락 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특히 야경이 멋진 것으로 유명하다. (4월 말부터 9월 중순 및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만 개방)

□ 그룬트비 교회: Grundvig 교회

고등공민학교의 창립자인 그룬트비 목사를 기념하여 1921-40년에 거국적으로 건립한 교회로 20세기 초 덴마크의 대표적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6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하였으며 파이프오르간이 특히 유명하다. (개방 시간: 09:00 - 16:00 (월-토), 12:00 - 13:00 (일))

2) 질랜드 섬

코펜하겐 시가 위치한 섬으로 헬싱거(Helsingor), 로스킬드(Roskilde), 힐러뢰드(Hilleroed) 등 주요 도시가 있다.

□ 크론보 성: Kronborg Slot

프레데릭 2세의 명령에 따라 1574-85년에 축조된 일종의 해군 요새로 헬싱거에 위치 (코펜하겐 북쪽 45km 에 위치)하고 있으며 크론보성은 북해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해협인 가장 좁은 길목에 위치하여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세를 징수하던 곳으로 셰익스피어 작품인 "햄릿"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개방 시간: 10:00 - 15:00 (화-일))

□ 프레데릭스보 성: Frederiksborg Slot

1602-1620년 Christian 4세에 의해 건설된 북구에서 가장 훌륭한 르네상스 시대의 성으로 힐러뢰드(Hilleroed)에 위치 (코펜하겐 북쪽 36km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덴마크 국립 역사 박물관으로 Christian 1세 이후 왕가 일족의 초상화, 가구, 예술품 등이 소장되어 있다. (개방 시간: 10:00-15:00 (월-일))

□ 프레덴스보 왕궁: Fredensborg Palace

1719-22년 건립된 바로크 양식 왕궁으로 왕실의 하계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코펜하겐 북서쪽 40km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은 상시 개방이나 왕궁은 7월만 개방)

3) 로스킬드(Roskilde)

덴마크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로 옛날 바이킹의 근거지로 유명하다. 코펜하겐 서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바이킹 박물관: Viking Ship Museum

수심이 깊지 않은 로스킬드 만에 가라 앉은 바이킹 배 5척을 1962년 인양하여 전시한 박물관이다. (개방 시간: 10:00 - 16:00 (월-일))

□ 로스킬드 성당: Roskilde Domkirke

1000년경에 지은 목조 건물을 토대로 12세기 압살론 주교가 건립한 성당으로 38명의 덴마크 왕 및 왕비의 무덤이 있다.

4) 유트랜드 반도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덴마크 본토로 7,448km²에 2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 Lego Land

인어상과 함께 덴마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조립식 완구로 유명한 Lego사에서 조성한 공원이다. 모든 놀이기구가 레고로 만들어져 있어 원색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곳이다.

□ Skagen

유트랜드반도 최북단에 위치한 스카겐은 두 바다가 만나는 장소로 유명하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스카겐은 18세기 중엽 이후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예술의 마을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하였다. 두 해협이 파도가 만나는 아름다운 해변과 모래사장,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들이 유명하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코펜하겐 국제 패션전(Copenhagen International Fashion Fair)
 - 개최기간: 2009.8.6-8.9
 - 개최장소: Bella Center
 - 전시품목: 각종 의류 및 액세서리
 - 웹사이트: www.ciff.dk
- 허닝 선물공예품전(Formland)
 - 개최기간: 2009.8.14-8.17
 - 개최장소: Messecenter Herning
 - 전시품목: 공예품, 선물.판촉용품
 - 웹사이트: www.formland.dk
- 코펜하겐 금.은.시계 박람회(Gold Silver and Watches 2009)
 - 개최기간: 2009.8.20-8.23
 - 개최장소: Bella Center
 - 전시품목: 귀금속 및 시계
 - 웹사이트: www.bellacenter.dk

- 코펜하겐가구전(Scandinavian Furniture Fair 2009)
 - 개최기간: 2009.8.27-8.30
 - 개최장소: Bella Center
 - 전시품목: 가구
 - 웹사이트: www.furniturefair.dk

- 허닝산업박람회(Hi Industri 2009)
 - 개최기간: 2009.9.1-9.4
 - 개최장소: Messecenter Herning
 - 전시품목: 공작기계, 기계류, 냉난방, 보안.안전설비, 설비산업, 엔지니어링, 용접.절단 관련 제품
 - 웹사이트: www.hi-industri.dk

- 허닝농업박람회 2009(International Trade Fair for Agricultural Machinery, Cattle & Pigs)
 - 개최기간: 2009.11.24-11.28
 - 개최장소: Messecenter Herning
 - 전시품목: 농업, 임업, 축산 관련 기계장비
 - 웹사이트: www.agromek.dk

- 허닝식품박람회 2010(FoodExpo)
 - 개최기간: 2010.1.24-1.27
 - 개최장소: Messecenter Herning
 - 전시품목: 식품.음료, 유통.요식업 관련 제품
 - 웹사이트: www.foodexpo.dk

- 코펜하겐 국제 패션전(Copenhagen International Fashion Fair)
 - 개최기간: 2010.2.11-2.14
 - 개최장소: Bella Center
 - 전시품목: 각종 의류 및 액세서리
 - 웹사이트: www.ciff.dk

- 코펜하겐보트전(Copenhagen Boat Show)
 - 개최기간: 2010.2.27-3.7
 - 개최장소: Bella Center
 - 전시품목: 보트, 요트 및 관련 용품
 - 웹사이트: www.bellacenter.dk

- 스칸디나비아 재활의료기기전 2010(Rehab Scandinavia)
 - 개최기간: 2010.5.4-5.6
 - 개최장소: Bella Center
 - 전시품목: 재활의료기기
 - 웹사이트: www.rehab-scandinavia.com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덴마크 총리실: www.stm.dk
- 덴마크 경제산업부: www.oem.dk
- 덴마크 외교부: www.um.dk
- 덴마크 중앙은행: www.nationalbanken.dk
- 덴마크 통계청: www.statbank.dk
- 덴마크 전경련: www.di.dk
- 덴마크 노동조합: www.lo.dk
- 덴마크 농업위원회: www.landbrug.dk
- 덴마크 소비자위원회: www.forbrugerradet.dk
- Invest in Denmark: www.investindk.com
- Copenhagen Capacity: www.copcap.com